

2011 세계문화유산으로 배우는 역사 논술 기행 - 북경편

중국의 심장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그리다

언제 : 2011년 12월 30일(금) - 2012년 1월 3일(화)
4박 5일간

어디로 : 중국 북경 세계문화유산을 찾아서
주구점유적, 만리장성, 자금성,
천단, 명13릉, 이화원을 중심으로

체험학습연구회 모아재



목차

I. 기행을 떠나기 전에 / 5

- 기행 일정표 / 7
- 참가자 명단 / 8
- 중국 개요 / 9
- 중국의 역사 / 12
- 중국의 문화 예절 / 15
- 위조 지폐 구별법 / 17
- 간단한 중국어 / 18

II. 첫째날 / 27

- 왕부정거리 / 29
- 마테오리치성당 / 31

III. 둘째날 / 39

- 천단 / 41
- 국가박물관 / 50
- 자금성 / 52

IV. 셋째날 / 65

- 주구점 유적 / 67
- 노구교 / 72
- 번가원 시장 / 78

V. 넷째날 / 79

- 만리장성 - 거용관 / 81
- 명13릉 - 신종 정릉 / 86
- 798예술거리 / 91

VI. 마지막날 / 93

- 과학기술관 / 95
- 이화원 / 95

VII. 역사 논술 짱 되기 / 101

- 역사를 알아야 한다 / 103
- 논술이란 무엇인가? / 104
- 논술의 노하우 / 107
- 논술 답안 작성의 원칙 / 110
- 기출 및 예상 문제 풀이 / 112

VIII. 동영상 UCC 만들기 / 119

- 활동을 제안하면서 / 121
- 날짜별 활동 계획 / 121
- UCC 영상 제작 과정 / 122

소감문 작성 / 132



제1장 기행을 떠나기 전에

01. 기행 일정표
02. 참가자 명단
03. 중국 개요
04. 중국의 역사
05. 중국의 문화 예절
06. 위조 지폐 구별법
07. 간단한 중국어



1

기행 일정표

날짜	장소	교통	시간	내용	비고
제1일 30일	인북 천경	OZ BUS	13:00 15:00 17:00 19:00 21:00	인천 출발 북경도착 및 공항수속 왕부정 거리, 마테오리치성당 답사 호텔 도착 짐 정리 후 저녁식사 일정소개 및 개인소개, 팀별 시간 HOTEL: 북경교육문화호텔	
제2일 31일	북경	BUS	08:00 09:00 10:30 11:00 13:00 14:00 16:30 18:00 18:30 21:00	호텔조식 출발 천단 답사 및 미션 수행 전철 이동 (국가박물관) 국가박물관 답사 모듈별 활동 점심식사 자금성-경산 답사 모듈별 활동 저녁식사 호텔도착 논술 토론 및 일일 정리 HOTEL: 북경교육문화호텔	
제3일 1일	북경	BUS	08:00 10:00 12:00 13:00 13:30 15:00 17:00 18:00 20:00 21:30 22:30	호텔조식 주구점 유적 도착 주구점 유적 팀별활동 (제1원인동-주구점박물관-산정동) 노구교 인근 점심식사 노구교 답사 번가원(골동품 시장) 도착 번가원 모듈별 미션 수행(1인당 50위안) 저녁식사 공연관람 호텔도착 역사 답사 및 논술 정리 HOTEL: 북경교육문화호텔	
제4일 2일	북경	BUS	08:00 09:00 10:30 12:00 14:00 15:00 17:00 18:30 20:00 22:00	호텔조식 만리장성(거용관) 도착 만리장성 답사 점심식사 명13릉 신종 정릉 답사 798예술거리 도착 798거리 중국 현대 예술 문화 체험 저녁 식사 까르푸 장보기 체험(모듈별 활동) 역사논술 포트폴리오 작성 및 토론 HOTEL: 북경교육문화호텔	
제5일 3일	북경 인천	BUS OZ	09:00 09:30 11:00 11:30 13:00 14:00 15:00 17:30 20:30	아침 식사 과학기술관 도착 과학기술관 전시 체험 이화원 도착 이화원 관람 점심 식사 공항 도착 북경 출발 인천 공항 도착	
차량	51인승				
참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2인1실), 식사(조,중,석식), 51인승 관광버스, 입장요금 포함 ●식당에서 마실 음료수와 매일 차내 및 답사현장에서 마실 생수 등 포함 				

2

참가자 명단

연번	이름	급별	성별	방배정	답사팀
1	안정은	성인	여	1	김봉수
2	옥수현	초6	남	1	조성래
3	황세현	초6	여	2	조성래
4	이유리	성인	여	3	김봉수
5	현영창	성인	남	3	김봉수
6	현지연	고1	여	4	김진호
7	김성겸	초3	남	4	조성래
8	김수민	초5	여	5	조성래
9	현종은	초5	여	5	조성래
10	김양진	성인	여	6	김봉수
11	김현수	초3	여	6	조성래
12	이영숙	성인	여	7	김봉수
13	박세영	초5	남	7	조성래
14	임지현	고1	여	8	김진호
15	윤현미	고1	여	8	김진호
16	임성윤	중1	남	9	김진호
17	윤광효	초5	남	9	조성래
18	남선이	성인	여	10	김봉수
19	김서영	초6	여	10	조성래
20	김보화	중1	여	11	김진호
21	조윤정	중1	여	11	김선희
22	박예린	중1	여	12	김선희
23	박세인	중1	여	12	김선희
24	박예림	중1	여	13	김선희
25	정혜윤	중1	여	13	김선희
26	오승현	초6	남	14	김선희
27	김원동	초5	남	14	김선희
인솔자 소개	김봉수	남	성인		
	김선희	여	초·중		
	김진호	남	중·고		
	조성래	남	초 등		

1. 중국인민공화국 수도와 국토면적

- 중국의 국토면적은 약960만 평방킬로미터으로써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나라이다. 1949년 건국하였으며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中华人民共和国>이고 수도는 북경(北京)이다.

2. 중국인구

-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고 2010년의 제6회 전국인구조사결과 총인구수가 대만(臺灣, 타이완, Taiwan)을 포함해서 1,370,536,875명이다.

3. 중국민족

-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한족, 만족, 몽고족, 회북, 장(티베트)족, 위구르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지족, 라구족, 수이족, 둥상족, 나시족, 징퍼족, 키르키즈족, 투족, 다우르족, 머로족, 창족, 부랑족, 살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타지크족, 어원커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타타르족, 두룽족,오로죤족, 허저족, 먼바족, 튀바족, 지노족 등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한족 인구가 가장 많아 인구의 92%를 차지 하고 있다.

4. 중국종교

- 중국 종교는 주로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등이다. 중국인민은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고 자신의 종교신앙(信仰)과 종교신분을 표현 할 수 있다.

5. 중국행정

- 중국의 행정은 4개 직할시, 23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로 구분된다.
- 직할시: (북경, 상해, 천진, 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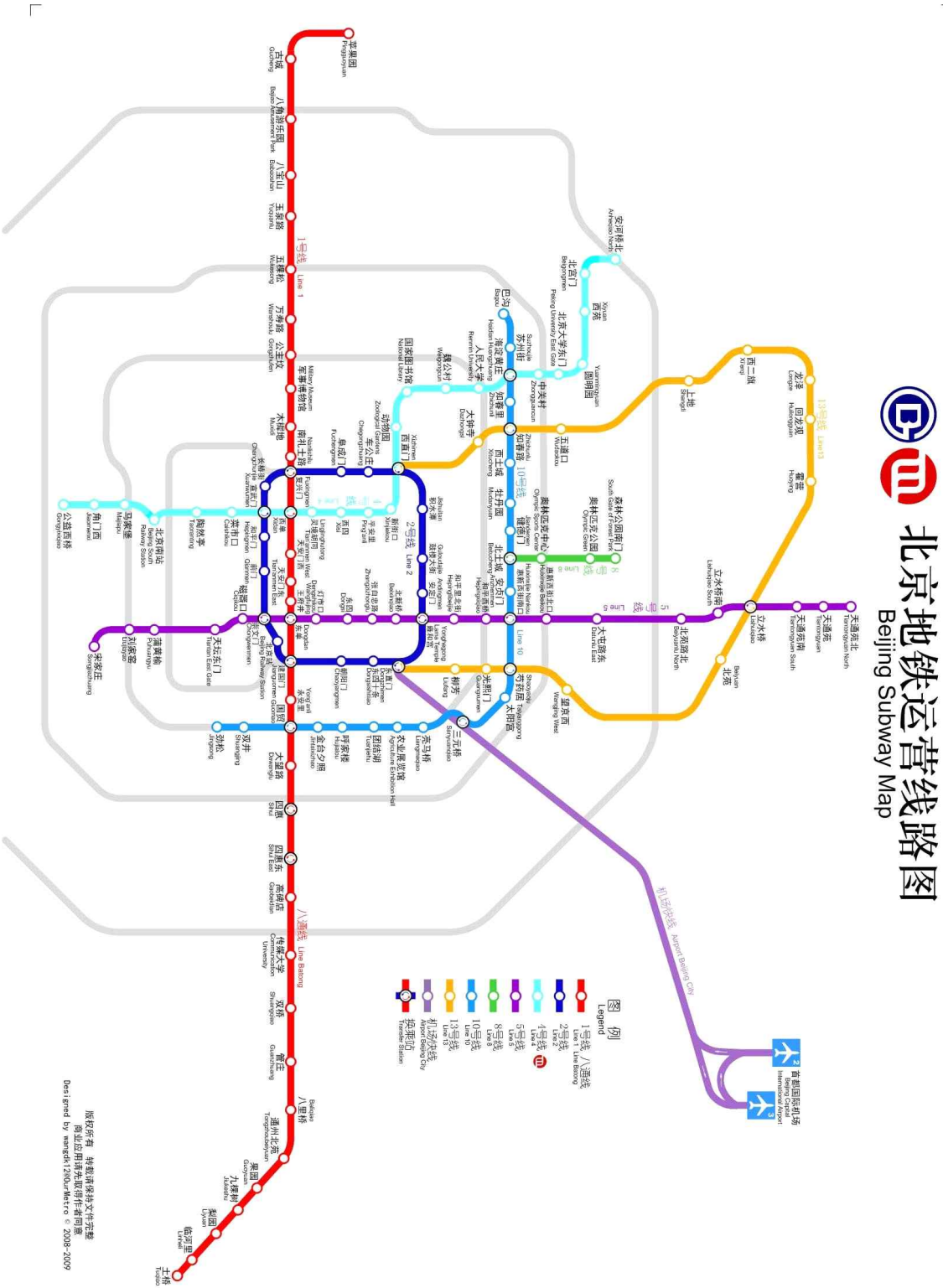
- 성: (감숙성-甘肃省, 강서성-江西省, 강소성-江苏省, 광둥성-广东省, 귀주성-贵州省, 길림성-吉林省, 료닝성-辽宁省, 복건성-福建省, 사천성-四川省, 산둥성-山东省, 산서성-山西省, 섬서성-陕西省, 안휘성-安徽省, 운남성-云南省, 절강성-浙江省, 청해성-青海省, 하남성-河南省, 하북성-河北省, 해남성-海南省, 호남성-湖南省, 호북성-湖北省, 흑룡강성-黑龙江省, 대만성-台湾省)
- 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내몽골자치구-内蒙古自治区, 녜하회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서장자치구-西藏自治区, 신강위그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 특별행정구: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6. 중국지도



넓어서 정겨운 중국, 달라서 즐거운 중국

7. 북경 지하철 노선도



版权所有，未经许可不得转载
 北京地铁运营有限公司
 Designed by wanglin@china.com © 2008-2009

1. 선사시대

- 1927년 중국의 베이징시 외곽周口店[周口店]에서 제4기 홍적세(洪積世)의 중기 제2간빙기(第二間氷期) 지층에서 직립 유원인 다음의 고인골(古人骨)이 발견되어 북경인(北京人:Sinanthropus Pekinesis)이라는 학명이 붙여졌다.
- 그 후 마지막 제4빙하기에 현대 아시아인종의 조상인 상동인(上洞人)이 저우커우텐의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 최고(最古)의 채색토기 문화가 나오는데, 이는 흑·백·홍으로 문양(文樣)을 그린 토기로 화베이 일대에서 남쪽으로는 푸젠·타이완에 분포하는데 1921년 허난성 앙소유적[仰韶遺蹟]에서 출토되어 이 계통의 문화를 앙소문화라고 총칭한다.
- 그 다음에 나타난 흑색토기(黑色土器) 문화의 대표적 유적은 산둥성 용산진[龍山鎮]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이름을 따라 용산문화라고 한다.

2. 고대

-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상고의 3황(三皇)·5제(五帝)의 평화 시대를 거쳐 하(夏)·은(殷)·주(周)의 3대(三代)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 은허에서 발견된 귀갑수골(龜甲獸骨)에 새겨진 한자의 최고형(最古形)인 복사(卜辭)에 의하여 은대의 사회를 알 수 있다. 은나라는 웨이수이[渭水]에서 일어난 주(周)나라에 의하여 멸망되었는데 주나라는 왕권의 확립과 사회의 안정에 따라 제자백가(諸子百家)와 같은 문화가 발달하였다.
- 주나라는 BC 770년 수도를 낙읍(洛邑:지금의 洛陽縣)으로 옮겼다. 주나라의 동천 후 춘추(春秋:BC 770~BC 403)시대를 거쳐 전국(戰國:BC 403~BC 221)을 거쳤고 BC 221년,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천하를 통일하였다.
- 진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도(郡縣制度)를 단행하고 행정·군사·감찰의 3권 분립 체제를 세웠다.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축조하고 국위를 사방에 떨쳐 진(Chin)의 이름이 서쪽에 전해져 'china'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 그러나 BC 207년 진은 멸망하고, 서민 출신인 유방(劉邦)이 장안(長安)을 수도로 한왕조(漢王朝)를 창업하였다(BC 202)으며 현대에는 서방과의 교통이 활

발하여 그 문화가 수입됨으로써 중국 문화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지방 호족(豪族) 세력이 발전하게 되어 한때 왕망(王莽)이 신(新)을 건국하였지만 15년 만에 무너지고 광무제 유수(光武帝 劉秀)에 의하여 후한(後漢:25~220) 시대가 된다. 그러나 전한부터의 타성이 그대로 남아 184년 황건(黃巾)의 난을 계기로 몰락의 기로에 들었다.

3. 중세

- 황건의 난으로 군웅할거시대가 된 중국은 조조(曹操)의 아들 조비(曹丕)가 낙양에 세운 위(魏)와 유비(劉備)가 청두[成都]에 세운 촉한(蜀漢), 그리고 양쯔강 중·하류에 손권(孫權)이 세운 오(吳) 등의 3나라의 삼국정립 시대를 맞게 된다.
- 280년 위의 신하이던 사마씨(司馬氏)가 3국을 통일하여 서진(西晉)이 되었고, 4세기 초 흉노(匈奴)의 침입으로 난징[南京]으로 옮겨 동진(東晉)이라 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다.
- 그 후 송(宋)·제(齊)·양(梁)·진(陳)의 4조(四朝)와 오(吳)·진(晉)을 더한 6조(六朝)가 교대되었는데 이 시대의 문화는 귀족과 호족들의 풍족한 생활에서 전개된 화려하고 우미한 것이었다.
- 한편 화베이지방은 5호16국(五胡十六國)이 서로 싸우다가 선비족(鮮卑族)이 439년 북위(北魏)로 통일하여 송(宋)나라와 대항하여 남북조 형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형세는 581년 북조의 수(隋)나라에 의해 통일되었다.
- 수나라 문제(文帝)는 군권을 강화하고 과거(科擧)제도를 시작하였으며, 양제(煬帝)는 대운하를 만들었지만 고구려와 싸워 대패함으로써 내란이 일어나 618년 멸망하였다.
- 이연(李淵)이 장안을 점령하고 당(唐)나라의 제위에 올라, 이후 당나라는 넓은 대제국으로 영토를 확대하였다. 귀족의 취미와 외형의 미를 강조하는 당대의 문화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문화는 인접 국가에 파급되어 동아문화권(東亞文化圈)이 형성되었다.
- 그러나 후기로 오면서 귀족 계급이 몰락하고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나 907년 주전충(朱全忠)의 후량(後梁)에 멸망되었다. 이후 5대 10여 개국이 흥망하였다.

4. 근대

- 당나라 말에서 5대에 걸친 비약적 산업발전 상황에서 송(宋)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송나라의 국책 기조는 재정(財政)에 두었으며 국내 경제를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를 완성하였다.
당말(唐末) 5대에 걸치는 혼란 속에 귀족계급은 몰락하고 균전제(均田制) 아래에서 발전해온 형세호(形勢戶)라는 신흥 지주층 세력이 신장하였다.
송(宋)나라가 절도사를 폐지하자 그들이 장원(莊園)의 영주가 되고 경작은 전호(佃戶)라는 농노가 주로 하였다.
송대의 문화적 특색은 국수적(國粹的)·내성적·서민적인 점에 있고, 그 기반은 지주·관료들이었다.
- 한편 화베이지방으로는 넓은 지역에 요(遼)가 대제국을 건설하여 번창하였다(916~1125). 또 서부에서는 티베트계[西藏系]의 서하(西夏)나라가 일어나 송(宋)나라는 두 나라에게 시달림을 받았다.
- 12세기에는 만주 지방의 여진족(女眞族)이 세운 금(金)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요(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開封]을 함락시켜, 송(宋)나라는 강남(江南)으로 도망하여 항저우[杭州]에 임시 수도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남송(南宋)이라 칭한다(1127).
- 13세기 초에는 몽골 민족에 의해 원(元)나라가 대제국을 건설하여 남송(南宋)을 멸망시키고 일본에 원정하는 등 여러 지역을 경략하였다.
그러나 원왕조(1216~1368)는 인구와 문화수준의 열세 때문에 명태조(明太祖)에 쫓겨 북방으로 추방되었다.
- 명나라는 수도를 베이징[北京]으로 옮기고 중앙집권적 전제국가(專制國家)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국내재정의 곤란과 환관(宦官)의 발호, 기강의 퇴폐 등 문제가 산적한 명왕조가 내란으로 자멸하자, 만주 여진족의 청(淸)이 북경에 들어와 중국의 지배자가 되었다.

5. 현대

- 산업혁명을 치른 서구의 문화는 명나라 말기, 청(淸)나라 초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켜 청왕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서구 세력들의 물밀듯한 침점(侵佔)으로, 홍콩[香港]을 영국에게, 만주 북방을 러시아에게 할양하고, 안남(安南) 등 조공국에 대한 종주권(宗主權)을 잃었으며, 국내 요소에 외국 조계(租界)가 많이 설치되어 청왕조의 주권이 미치지 못

하게 되었다.

- 이러한 동요 속에서도 근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동치중흥(同治中興)을 통해 근대공업이 일기 시작하였으나 청일전쟁이 일어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 청일전쟁 직후에는 강유웨이[康有爲]의 점진개혁론이 활발하였으나 무술정변(戊戌政變)에 의하여 실패하고 의화단(義和團)의 북청사변(北清事變)은 청왕조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 러·일전쟁 후 쑨원[孫文]이 신해혁명(辛亥革命)에 의하여 임시 대통령에 취임하여(1912) 2,000년 이래의 전제군주제가 무너지고 공화제의 중화민국(中華民國)이 탄생되었다.
- 그러나 그 후 약 20년간 군벌의 압제에 시달려야 했다. 쑨원의 사후에 후계자가 된 장제스[蔣介石]는 북벌(北伐)의 성공으로 양쯔강 유역에 진출하였다.
- 난징사건[南京事件]이 일어나 소련과 단교한 장제스는 군벌 장쥘린[張作霖]을 몰아내어 국민정부를 정통정부로 만들었다(1928).
- 장제스는 소련과 단교하였을 때 중국 공산당도 탄압하였으나 일본의 침공이 격화되자 장제스는 다시 중국 공산당과 화해하여 일본에 대항하였다.
-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5

중국의 문화 예절

- 중국인은 옛적에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 잡아, 공경(恭敬)의 뜻을 나타내는 공수(拱手)의 인사법을 사용했지만 현대 중국인은 주로 악수를 하거나 마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사한다. 악수는 오른손으로 해야 하며 너무 느슨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1~3초 잡고 있으면 된다. 아니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는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한국 예의를 잘 아는 중국인한테는 일부러 무례하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줄 수도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편한방식으로 인사를 하면 된다.



-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숟가락을 엮어 놓아야 한다.
자기가 사용하고 난 수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예절로 여기기 때문이다.
-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는 선물을 짝수로 준비한다.
그러나 벽시계, 탁상시계, 우산, 외국화편, 기념주화는 삼가! 시계를 뜻하는 종(鍾)의 발음이 끝을 나타내는 종(終)의 발음과 같기 때문이다 시계는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 음식점에서 식사 초대를 받을 경우 중국인이 지정하는 자리에 앉는다.
음식 값을 지불하는 호스트가 좌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준비된 음식에는 적어도 한 번씩 손을 대는 것이 예의이다.
- 중국인은 체면과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체면을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며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태도는 안 되며,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극단적 표현은 절대 삼가 해야 한다. 접대 시 상호 체면을 중시하므로 공평하게 선물을 주며 상징적 대표에게만 간단히 선물하는 경우도 있다.
- 중국인은 여유와 체계가 있는 국민이다.
거래를 할 때도 여유를 즐기며 중국인 특유의 상술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협상 시 이들은 상대의 요구사항을 듣고 하나하나 답변해 나가며, 첫째, 둘째, 셋째 와 같이 체계적인 것을 선호한다.
- 중국인은 사람을 믿거나 돈 버는 단위를 10년으로 한다.
이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고 일단 믿은 사람은 매우 오랜 기간의 친분을 갖기 때문이다.

6 위조 지폐 구별법

'위조 지폐' 구별법 3가지



- 한국 여행객들이 환전할 때나 거스름돈을 받을 때 어떻게 위폐를 구별할 수 있을까.
- 먼저 100위안짜리 지폐를 밝은 곳에서 눈앞에 세워들면, 왼쪽 아래 '100'이라는 숫자(①)가 반짝거리는 녹색으로 보인다(50위안 지폐는 금색).
- 그러나 지폐를 천천히 가로로 눕히면 반짝임이 사라지면서 짙은 회색에 가깝게 바뀐다. “색이 거의 변하지 않으면 위폐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 또 빛을 마주하고 들여다 보면 좌측 여백(②)에 마오쩌둥 얼굴(10, 20위안 지폐는 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 위폐는 얼굴이 안 보이거나 얼굴선이 뿌옇게 번진다고 한다.
-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 그런 때는 마오쩌둥의 옷깃과 어깨 부분(③)을 엄지손톱으로 긁으면, 진짜는 요철이 느껴진다.
- 요철 느낌이 없으면 위폐다. 다른 지폐도 똑같다. 중국의 택시 승객들이 ‘무엄하게도’ 마오쩌둥 동지의 옷을 문질러 대는 건 이 때문이다.

숫자

- 0 零 líng 링. 1 一 yī 이. 2 二 èr 얼. 3 三 sān싼. 4 四 sì 쓰. 5 五 wǔ 우. 6 六 liù 리우. 7 七 qī 치. 8 八 bā 빠. 9 九 jiǔ 지우.
- 10 十 shí 스. 11 十一 shí yī 스이. 12 十二 shí èr 스얼. 20 二十 èr shí 얼스. 30 三十 sān shí 싯스. 40 四十 sì shí 싯스. 50 五十 wǔ shí 우스. 60 六十 liù shí 리우스. 70 七十 qī shí 칠스. 80 八十 bā shí 빠스, 90 九十 jiǔ shí 지우스. 100 一百 yī bǎi 이바이. 1000 一千 yī qiān 이치엔. 10000 一万 yī wàn 이완.

호텔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회화

- 무슨 일이십니까? What's the matter?
= 请问什么事? qǐng wèn shén me shì 칭원선머스
-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The faucet is broken.
= 水龙头出故障了。shuǐ lóng tóu chū gù zhàng le 수이롱터우 추꾸장러
- 더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Hot water doesn't come out.
= 不出热水。bù chū rè shuǐ 뿌추러수이
-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The air-conditioner doesn't work.
= 空调坏了。kōng diào huài le 쿵 타오 화이러
- TV화면이 안 나옵니다. The TV doesn't work.
= 电视不显像了。diàn shì bù xiǎn xiàng le 띠엔스뿌시엔상러
- 타월을 바꿔주세요. Can I get a new towel?
= 请帮我换毛巾。qǐng bāng wǒ huàn máo jīn 칭방위 환마오진
- 방을 바꿔주세요. Could you change my room?
= 请给我换房间。qǐng gěi wǒ huàn fáng jiān 칭게이위 환팡지엔
- 옆방이 시끄럽습니다. The net room is very noisy.
= 隔壁房间太吵了。gé bì fáng jiān tài chǎo le 거삐 팡지엔 타이차오러

- 포터를 보내주세요. A porter, please.
= 请叫一下行李员。qǐng jiào yī xià xíng lǐ yuán 칭찌아오이사 썩리위엔
-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I'd like to checkout.
= 请给我退房。qǐng gěi wǒ tuì fáng 칭게이워 투이팡
-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Just the bill, please.
= 请结账。qǐng jié zhāng 칭지에장
-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is a mistake on this bill.
= 好象计算错了。hǎo xiàng jì suàn cuò le 하오샹 지수안취러
- 신용카드도 됩니까? Do you accept credit cards?
= 刷卡可以吗? shuā qiǎ kě yǐ ma 수아카 커이마

호텔에서 필요한 단어

- 비누 soap 香皂 xiāng zào 상자오.
- 샴푸 shampoo 洗发精 xǐ fā jīng 씨과짱.
- 드라이기 hair dryer 吹风机 chuī fēng jī 추이펑지.
- 냉장고 mini-bar 冰箱 bīng xiāng 뽕샹.
- 형광등 light 电灯 diàn dēng 띠엔딩.
- 열쇠 lock 钥匙 yào chí 야오스.

교통에 대한 회화

길을 물을 때 쓰는 회화

- 실례합니다. Excuse me.
= 打饶了。dǎ ráo le 따라오러
-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 请问一下。qǐng wèn yī xià 칭윈이사
- 여기는 어디입니까? Where are we now.
= 这个地方在哪里? zhè gè dì fāng zài nǎ lǐ 썩거디팡짜이나리

- 여기는 무슨 거리입니까? What street is this?
= 这里是什么街? zhè lǐ shì shén me jiē 찌리스 셴머지에
- 길을 잃었습니다. I got lost on my way.
= 我迷路了。wǒ mí lù le 워미루러
- 박물관은 어떻게 갑니까? How can I get to the museum?
= 博物馆怎么去? bó wù guǎn zěn me qù 보우관 전머취
- 이 길이 아닙니까? Am I on the wrong street?
= 不是这条路。bù shì zhè tiáo lù 뷘스 저타오루
- 곧장 가십시오. Go straight.
= 请间直走。qǐng jiān zhí zǒu 칭지엔즈저우
- 저기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Turn right there.
= 在哪里往右拐。zài nǎ lǐ wǎng yòu guǎi 짜이나리 왕여우파이
- 여기서 가깝습니까? Is it near here?
= 离这里近吗? lí zhè lǐ jìn ma 리찌리전마
-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Can I walk there?
= 能走去那里吗? néng zǒu qù nà lǐ ma 녕저우취나리마
- 걸어서 몇 분 걸립니까? How many minutes by walking?
= 走着去几分中? zǒu zháo qù jǐ fēn zhōng 쩌우저취 지펀중

지하철을 이용할 때 쓰는 회화

-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습니까? Is a subway station near here?
= 这附近有地铁站吗? zhè fù jìn yǒu dì tiě zhàn ma 찌푸전여우 디티엔잔마
- 지하철 노선도를 주세요. May I have a subway map.
= 请给我地铁路线图。qǐng gěi wǒ dì tiě lù xiàn tú 칭게이워 띠티에루시엔 투
- 자동매표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ticket machine?
= 自动售票机在哪里? zì dòng shòu piào jī zài nǎ lǐ 즈똥셔우파오지 짜이나리

- 옹화구역까지 얼마나 먼가요? How much is the fare to Yonghegong?
= 到雍和宫车站多少钱? dào yōng hé gōng chē zhàn duō shǎo qián 따오 용허궁차 잔뚜오샤오 치엔
- 어디서 갈아타니까? Where should I change?
= 在哪儿换车? zài nǎ ér huàn chē 짜이날 환차
- 광장의 출구는 어디입니까? Which exit should I take for Plaza?
= 请问, 广场出口在哪儿? qǐng wèn, guǎng chǎng chū kǒu zài nǎ ér 칭원 광창추커우짜이날
- 베이징 역은 몇 번째입니까? How many stops are there to Beijing station?
= 北京站到那里还有几站? běi jīng zhàn dào nà lǐ hái yǒu ér zhàn 베이징 잔 따오나리 하이여우지잔
- 다음은 어디입니까? What's the next stop station?
= 下一站是哪里? xià yī zhàn shì nǎ lǐ 샤이잔스나리

관광

관광안내소에서 쓰는 회화

- 관광안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 观光介绍所在哪儿? guān guāng jiè shào suǒ zài nǎ ér 판구양 지에샤오 쉼 짜이날
- 시내지도 1장 주세요. Can I have a city map?
= 请给我一张市内地图。 qǐng gěi wǒ yī zhāng shì nèi dì tú 칭게이워 이장스네이띠투
- 한국어 팸플릿 있습니까? Do you have a Korean language brochure?
= 有用韩文介绍的小册子吗? yǒu yòng hán wén jiè shào de xiǎo cè zǐ ma 여우용한원지에샤오더 샤오처즈마
- 시내 1일 관광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I'd like a full-day tour of the city.
= 我想参加市内一日游。 wǒ xiǎng cān jiā shì nèi yī rì yóu 위상찬짜스네이

이르여우

• 관광할 만한 곳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Could you recommend some interesting places?

= 请问, 这一带都有哪些旅有胜地? qǐng wèn, zhè yī dài dōu yǒu nǎ xiē lǚ yǒu shèng dì 칭윈 짜이따이떠우여우 나시에뤄여우성띠

• 경치가 좋은 곳을 아십니까? Do you know a place with a nice view?

= 知道什么地方景色好吗? zhī dào shén me dì fāng jǐng sè hǎo ma 즈따오션 머띠팡 징서하오마

• 투어에 참가하시겠습니까? Are you interested in a tour?

= 想参加观光团吗? xiǎng cān jiā guān guāng tuán ma 상찬짜 판두앙투안마

• 여기서 표를 살 수 있습니까? Can I buy a ticket here?

= 在这里可以买票吗? zài zhè lǐ kě yǐ mǎi piào ma 짜이찌리 커이마이파오마

• 출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Where does it start?

= 在哪儿出发? zài nǎ ér chū fā 짜이날추파

• 몇 시에 출발하나요? What time does it leave?

= 几点钟出发? jǐ diǎn zhōng chū fā 지디엔중추파

• 한국어 가이드가 있습니까? Are there any Korean-speaking guides?

= 有韩国语导游吗? yǒu hán guó yǔ dǎo yóu ma 여우 한귀위다오여우마

• 야간관광은 있습니까? Do you have a night tour?

= 有晚上的旅游路线吗? yǒu wǎn shàng de lǚ yóu lù xiàn ma 여우완상띠 뤼여우루시엔마

표를 구입할 때 쓰는 회화

• 표는 어디에서 삽니까? Where can I buy a ticket?

= 门票在哪儿买? mén piào zài nǎ ér mǎi 먼파오짜이날마이

•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e admission?

= 入场券多少钱? rù chǎng quàn duō shǎo qián 투창취엔 뚜오샤오치엔

• 어른 두 장 주세요? Two adult, please.

= 请给我两张成人票。qǐng gěi wǒ liǎng zhāng chéng rén piào 칭게이워량장

청런파오

- 무료 팸플릿은 있습니까? Do you have a free brochure?
= 有免费的小册子吗? yǒu miǎn fèi de xiǎo cè zǐ ma 여우미엔페이더 샤오처즈마

관람할 때 쓰는 회화

- 저것은 무엇입니까? What's that?
= 那是什么? nà shì shén me 나스 셴머
- 저건 무슨 산입니까? What is the name of that mountain?
= 那是什么山? nà shì shén me shān 나스 셴머산
- 저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What's that building?
= 那个建筑是什么? nà gè jiàn zhù shì shén me 나거 쩌엔주 스션머
- 언제 세워졌습니까? When was it built?
= 什么是候建的? shén me shì hòu jiàn de 셴머스허우쨌엔더
- 내부를 견학할 수 있습니까? Can I take a look inside?
= 可一参观里面吗? kě yī cān guān lǐ miàn ma 커이찬관리미엔마
- 휴게실은 어디입니까? Where's the lounge?
= 休息处在哪儿? xiū xi chù zài nǎ ér 시우시추 짜이날
-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Where's the rest room?
= 洗手间在哪儿? xǐ shǒu jiān zài nǎ ér 썬셔우지엔 짜이날
- 매점은 어디입니까? Where's the stall?
= 小买部在哪儿? xiǎo mǎi bù zài nǎ ér 샤오마이부 짜이날
-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May I take pictures here?
= 可以在这里照相吗? kě yǐ zài zhè lǐ zhào xiāng ma 커이짜이찌리 자오샹마
-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May I take pictures inside?
= 在里面可以照相吗? zài lǐ miàn kě yǐ zhào xiāng ma 짜이리미엔커이 자오샹마
- 여기서 플래시를 터뜨려도 됩니까? May I use a flash here?

= 在这里可以用闪光灯吗? zài zhè lǐ kě yǐ yòng shǎn guāng dēng ma 짜이찌
리케이용 산꾸앙덩마

• 저랑 같이 사진 찍으시겠습니까? Would you take a picture with me?

= 可以一起照相吗? kě yǐ yī qǐ zhào xiāng ma 커이 이치 자오샹마

• 실례지만, 사진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Excuse me. Will you take a
picture of me?

= 麻烦您, 请帮我照相好吗? má fá nín, qǐng bāng wǒ zhào xiāng hǎo
ma 마판닌 칭빵워자오샹하오마

• 이 셔터만 누르시면 됩니다. Just press this button.

= 您按一下这个快门就行了。 nín àn yī xià zhè gè kuài mén jiù xíng le 닌
안이사 쩌거 콰이먼찌우쨥러

• 알겠습니다. 자, 웃으세요. All right, Say "Cheese"

= 明白了. 请笑一个。 míng bái le. qǐng xiào yī gè 밍바이러 칭샤오이거

• 한 장 더 부탁드립니다. One more, please.

= 请再照一张。 qǐng zài zhào yī zhāng 칭짜이자오이장

물건을 계산할 때 쓰는 회화

•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 多少钱? duō shǎo qián 뚜오샤오 치엔

• 이걸 세일 중입니까? Is this on sale?

= 这个正在打折吗? zhè gè zhèng zài dǎ zhé ma 쩌거정짜이 따저마

•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까? Does the price include tax?

= 包括税金吗? bāo kuò shuì jīn ma 바오 커 수이진마

• 너무 비싸요! It's awfully expensive!

= 太贵了! tài guì le 타이꾸이러

• 좀 싸게 해 주실 수 없나요? Can you give a discount?

= 能不能便宜一点? néng bù néng biàn yí yī diǎn 녕뽀녕피엔이 이디엔

• 깎아주면 사겠습니다. If you discount I'll buy.

= 便宜点就买。 biàn yí diǎn jiù mǎi 피엔이 디엔 쩌우마이

- 이렇게 비싸면 살 수가 없네요. Too expensive that I cannot buy it.
= 这么贵, 我没办法买。 zhè me guì, wǒ méi bàn fǎ mǎi 짜머꾸이 위메이 반과마이
- 다른 상점 좀 둘러볼게요. I'll look around at a few more places.
= 我想去看别的商店。 wǒ xiǎng qù kàn bié de shāng diàn 위상취 칸칸 뻘에 더 상띠엔
- 80위엔까지 드리겠습니다. 80Yuan is our rock bottom price.
= 最底八十元。 zuì dǐ bā shí yuán 쥘이디빠스위엔
- 더 이상은 깎지 마세요. You can't get it for less.
= 不能再底了。 bù néng zài dǐ le 뿌녕짜이디러
- 카드로 지불해도 되죠? May I use a credit card?
= 刷卡也可以吗? shuā qiǎ yě kě yǐ ma 슈아카예커이마
- 현금으로 지불하면 더 싸게 됩니까? Do you give discounts for cash?
= 付现金的话更便宜吗? fù xiànjīn de huà gēng biànyí ma 푸시엔진더화 정피엔이마

물건 살 때 필요한 단어

- 백화점 department store 百货商店 bǎi huò shāng diàn 마이휘상띠엔
- 슈퍼마켓 supermarket 超市 chāo jí shì chǎng 차오지스창
- 면세점 duty-free shop 免税店 miàn shuì diàn 미엔수이띠엔
- 할인점 discount shop 贱买商店 jiàn mǎi shāng diàn 쥘엔마이상띠엔
- 이것 this 这个 zhè gè 쥘거
- 저것 that 那个 nà gè 나거
- 향수 perfume 香水 xiāng shuǐ 상수이
- 선글라스 sunglass 太阳眼镜 tài yáng yǎn jìng 타이양엔징





제2장 첫째날

01. 왕부정거리
02. 마테오리치 성당



1

왕부정 거리

- 왕푸징(왕부정: 王府井)은 베이징 중심부 동청구에 있는 번화가이다. 외국인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거리를 조성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지역이 되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에 해당하는 곳이다.
- 왕푸징의 역사는 원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황제의 아들인 왕들이 모여살던 곳이라 ‘왕푸(왕부: 王府)’라 불렀는데, 명대에 이미 상업이 번성한 지역이 되었고, 청나라 때에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다고 해서 ‘왕푸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현재 우물이 있던 장소에는 안내판과 우물의 흔적이 남아 있다.





왕푸징 거리의 상징물인 옛우물

- 명·청 시대에 이미 변화한 상업거리였던 이곳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대규모 국영 백화점이 들어서며 그 명성을 이었고 현재에도 동양 최대의 쇼핑몰로 알려졌던 동방신천지를 비롯해서 유명한 백화점들이 몰려있다.
- 왕푸징 거리 동안면 다체에 있는 먹자골목은 거리 전체가 음식을 벌여놓은 포장마차와 함께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각각의 포장마차에는 중국 각 지역의 대표적인 먹을거리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음식들 뿐 아니라 우리 나라 번데기의 세배는 될 듯한 번데기나 전갈튀김, 심지어 뱀까지 이색적인 먹을거리들도 있어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의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곳의 음식 맛은 우리 입맛에는 맞지 않아 기대하는 맛하고는 전혀 다르고, 심지어는 비싸기까지 하다.



장안다제에서 연결된 보행자 도로. 좌우에 유명 백화점과 쇼핑 물이 들어서 있어 여행객들로 언제나 북적인다.

 1. 왕푸징 거리 안쪽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골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세 가지 사진으로 찍어 보세요.


 2. 왕푸징 거리에서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것들을 찾아 봅시다.(우리나라 상품광고, 우리나라 음식 등)


마테오리치 성당(남당 천주교회(난탕-南堂))




- 남당은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1605년 세운 곳으로 원래는 작은 경당이였다. 현재의 화려한 건물은 마테오리치가 죽은 후 그 뒤를 이었던 아담 샬에 의해 1650년 이후 새로 지은 것이다. 당시 청 황제였던 순치제는 은 1,000냥의 건립비용과 손수 쓴 글씨를 내릴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다고 한다. 남당은 현재 북경의 주교좌 성당으로, 성당의 뜰에는 마테오리치의 동상이 서있다.
- 특히 이곳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중국에 와서 들렀던 곳으로 우리나라의 서학 수용에 있어서 근원지의 역할을 한 유서 깊은 곳이다. 조선시대 청의 문물체도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입하자고 주장한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홍대용은 베이징에 왔을 때 이곳을 자주 찾아 서양 선교사들과 얘기를 나누었으며, 서양의 문물에 대해 적극적인 호기심을 보였다.
- 뒤를 이어 찾은 사람은 박지원으로 그는 황제를 보기위해 베이징에서 열하까지 갔다와서 『열하일기』 라는 멋진 여행기를 남겼는데 그 중에는 남당을 보고 쓴 글이 있다. 하지만 홍대용, 박지원 등의 실학자들이 보았던 그림들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데 1900년 의화단의 난 때 베이징의 동서남북에 있는 천주교회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1904년 다시 재건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 베이징에는 현재 ‘북당’과 ‘동당’도 남아있는데, 특히 북당은 1784년 이승훈이 베이징에 왔다가 서양선교사로부터 수학책을 얻기 위해 찾은 곳으로 유명하다. 이승훈은 예수회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한국 최초의 영세신자가 되었다.



 홍대웅은 이곳에서 어떤 그림을 보고 “머리를 풀어 좌우로 드리우고 눈을 찡그려 먼 데를 바라 보니, 무한한 생각과 근심하는 기상이다. 이것이 곧 천주(天主)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홍대웅이 본 그림 속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당에서 찾아 봅시다.

 박지원은 성당 건물을 보고 “지붕 머리가 종처럼 생겨 여염집 지붕 위로 우뚝 솟아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박지원이 표현한 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봅시다.

 마테오리치의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의 중국식 이름을 적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마테오리치와 조선 후기 실학

1. 마테오리치

중국에 온 선교사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년~1610년)이다. 그는 역법, 수학, 천문학, 시계 제작법 등을 배우고 중국에 들어와 이름도 중국식으로 리마두(利瑪竇)로 바꾸고 천주교 포교에 힘썼다.

그는 베이징에 와서 당시 명의 황제인 만력제(신종)에게 자명종 등의 선물을 바쳤는데 이 자명종이 황제의 흥미를 끌어서 1601년 베이징에 살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곳에서 황제로부터 집과 생활비 등을 받는 특혜를 누리며 중국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천주실의』를 저술하는 등 활발히 선교활동을 하였다.

『천주실의』는 가톨릭 철학과 스콜라 사상의 입장에 선 서사(西士)와, 전통 유학과 불교·도교의 사상을 갖춘 중사(中士)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사회에 천주교 전파를 목적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천주교 교리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책을 서술하였다. 그는 필요한 경우 불교와 도교 이념도 동원하였으며 중국의 고사성어(古事成語)를 적절히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일본 조선 등 한자문화권에서 광범위하게 흥미와 공감을 얻었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20만 여부가 발행되었고 여러 번에 걸쳐 재판되었다.

한자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읽힌 교리서인 『천주실의』가 이수광(1563~1628)의 ‘지봉유설(芝峰類說)’과 유몽인(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談)’을 통해 17세기 초에 조선에 소개되었다. 이때부터 천주교 선교사들의 작품들은 종교라기보다는 서학(西學)이라는 학문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들을 통해 천주교는 천주학(天主學), 서학(西學) 혹은 양학(洋學)이란 이름으로 소개된 것이다. 말하자면 17세기 후반부터 중국을 징검다리로서 실학파들의 천주교 영입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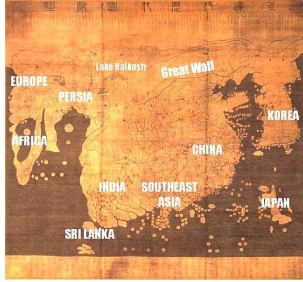
마테오리치가 조선에 끼친 직접적인 영향은 곤여만국전도의 조선전래를 통한 지리학 지식의 확장이다. 곤여만국전도 전래 이전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증거는 조선 초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다. 중국이 중심에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고 조선은 그 옆에 자리잡은 철저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였다. 곤여만국전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5개 대륙과 각 지역의 지리적 설명과 기후 등이 서문에 써있고 지구구체설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곤여만국전도를 통해 얻은 세계 지리학 지식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은 갖고 있던 조선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와 동시에 조선 양반들에게 서양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결국 그들이 서학(西學)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의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였고 이는 조선후기 사상의 흐름인 실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1. 마테오리치가 쓴 천주실의의 특징을 위의 글에서 찾아 한 문장으로 써봅시다.



2. 다음 두 지도를 보고 서로 다른 점을 찾아 봅시다.



(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5세기 초에 그려진 세계 지도이다.



(나) 마테오리치에 의해 제작된 곤여만국전도. 17세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3. 마테오리치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가 조선 후기 양반들에게 끼친 영향을 ‘세계관(세계를 바라보는 눈)의 변화’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글로 써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친구들과 토론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와 의견이 다르다”는 말보다 “너와 의견이 틀리다”는 식의 표현을 잘 쓴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나와 ‘틀리다’로 받아들여 바로잡거나 눌러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건전한 토론과 상호 공존을 더욱 어렵게 한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의 쓰임이나 뜻이 전혀 다른 말이다. ‘다르다’의 반대말이 ‘같다’, ‘틀리다’의 반대말이 ‘맞다’ ‘옳다’인 것만 봐도 두 단어의 뜻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로 치면 ‘다르다’는 ‘different’, ‘틀리다’는 ‘wrong’에 해당한다. ‘다르다’는 단순한 ‘차이’를 뜻하지만 ‘틀리다’는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모습, 생각,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인의 다양성을 ‘다른 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획일적인 외모, 일류 명문대 입학과 대기업 취직, 또는 전문직 등을 인생에서 얻는 단 하나의 정답으로 고집하는 사회가 된다.

안철수 연구소를 만든 안철수 박사는 “나이와 성별, 학벌 등으로 차별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내 스타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삶의 원칙을 갖자”고 말했다.



1.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말 중에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또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할 때 써야 하는 말은 둘 중 어떤 말일까요?



2. 다음 글을 읽고 위 글과 연결지어 (가)와 (나) 선교사의 차이점을 써 봅시다.

가.

마테오리치는 천주교를 전파하는데 중국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인정하며 그 위에 기독교 신앙을 적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천주실의에서도 천주교의 교리를 유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서 기독교 교리와 중국 전통문화의 갈등을 피하려고 하였다.

나.

17세기 이후 유럽의 많은 모험가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탐험하며 많은 여행기를 남겼다. 이들의 모험을 담은 책은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그들의 여행기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생활을 ‘야만적인, 그리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들의 여행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기 위한 안내서로 사용되었다.

해외선교사들의 활동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비기독교인들을 ‘반쯤은 악인이며, 반쯤은 어린애’로 간주하였고, 지역의 문화를 ‘열등한 문화’로 비하하여 유럽의 문화를 강요하였다.

결국 탐험가와 해외 선교사들의 활동은 이후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점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과 국가는 생존할 권리가 있으며, 실패한 민족과 국가는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약탈하는 것도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사회진화론’이라고 한다.



3. 다음 신문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써 봅시다.
(다르다와 틀리다, 문화의 다양성 등이 들어 가도록 써 봅시다.)

“하나님의 땅 선포” 기독교 신자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서울 삼성동 봉은사 대웅전에서 기독교식 예배를 보고 불교를 폄훼하는 장면 등을 담은 충격적인 동영상은 누리집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봉은사 땅밟기’라는 제목의 6분짜리 동영상은 20~30대로 보이는 남녀들이 대웅전을 비롯하여 봉은사 경내 곳곳에서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들어 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는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동영상은 불상, 사천왕상, 돌계단, 탕화 등을 보여주며 이를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헛되고 헛된 것들’이라고 지적한다. ‘찬양인도자학교 주님의향기 6조’라고 소속을 밝힌 이들은 동영상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자막과 함께 봉은사 대웅전, 불탑, 대웅전 입구 계단 등에서 두 손을 하늘로 뻗은 채 기도를 하고 요사체 기둥이나 불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진을 담았다. 동영상은 ‘주님!! 우상은 무너지고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으로 끝이 난다.

이들은 이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밝히며 소감까지 찍어 올렸다. 동영상 첫 부분에 등장하는 한 여성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며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에 의해)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회복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 남성은 “쓸데없는 우상이 많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다른 여성은 “주님을 믿어야 할 자리에 너무나 크고 웅장하게 절이 들어와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겨레 신문> 2010.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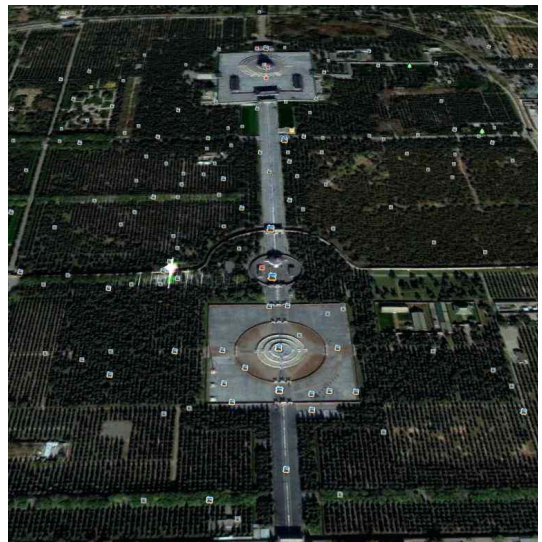
제3장 둘째날

01. 천단
02. 국가박물관
03. 자금성



가. 천단(天壇: 텐단)이란?

- 천단은 명, 청나라 시대 때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기우제를 지낼 때,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릴 때 사용하던 것으로 세계에서 현존하는 고대 제단 건축물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천단은 명나라 때 영락 18년(1420)년에 건설되었으나, 현재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이 청나라 때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그 구조는 명나라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 천단 공원의 면적은 273만㎡이고 내외부에 담벽을 2갈래로 쌓아 내단과 외단으로 나누었다. 내단에는 기년전, 원구단, 황궁우 및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전에 재계하는 재궁 등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외에도 단폐교, 장랑, 칠성석, 구룡백 등의 건축물과 조각 등이 있다. 신락서는 외단에 보존되어 있는 주요 건축물로 명·청나라 때 제사 음악 및 음률을 가르치고 훈련하던 장소이다.
-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천원지방-天圓地方)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땅의 영역인 황제의 궁전이나 땅의 신을 모신 지단 등 인간사 혹은 땅과 관련된 모든 구조물은 네모 형태로 만들었다. 반대로 하늘의 영역인 천단은 하늘의 모습을 본떠 원형을 기본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천단의 원구단, 황궁우, 기년전 등의 주요 건물은 모두 원형이다.
- 천단은 중국의 전통 왕조가 남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특색이 있는 건축물로서 199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베이징 관광국 홈페이지>



구글 위성지도로 본 천단의 모습. 남에서 북으로 원구단, 황궁우, 기년문, 기년전이 일직선 위에 놓여 있다.

나. 천단(天壇: 텐단)의 주요 건축물

■ 원구단(圓丘壇)

- 황제가 하늘을 향해 제천의식을 올렸던 곳으로, 황제만이 오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의 3층 기단을 오르면 하늘을 형상화한 거대한 원 모양의 공간이 있다. 기단의 각 층은 중국인들의 절대수이자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인 '9'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의 난간은 1단은 108개, 2단은 72개, 3단은 36개로 모두 9의 배수로 되어있다.
- 3층 계단을 오르면 둥그런 원형의 공간의 가운데 불록 솟은 둥근 돌이 보인다. 이것은 천심석(天心石)으로 황제가 하늘에 고하는 제문을 읽던 자리이다. 이곳에 서서 하늘을 향해 축문을 읽으면 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져 천하의 백성은 물론 하늘의 상제에게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다.

■ 회음벽(回音壁- Echo Wall)

- 회음벽은 황궁우(皇穹宇)의 담으로 원형이며, 둘레가 193.2m, 높이가 0.9m, 두께 0.9m이다. 이는 벽돌을 다듬어 가며 빈틈없이 이어 쌓은 담으로 두 사람이 벽 안쪽에 각각 동서 벽 밑에 서서 벽을 향해 대고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음파가 담벽을 따라 계속 반사 전진하며 서로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다.



회음벽. 벽에 대고 얘기하면 벽을 따라 소리가 전해진다.

- 전하는 말에 의하면 명황제가 천단에 제를 지내고 황궁우의 담 그늘에서 쉬는 중에 쥐의 울음소리를 듣고 신하들을 불러 쥐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쥐를 잡으려간 신하들이 담 밑에서 황제의 험담을 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을 불러 벽에도 귀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참수형을 가했다는 얘기가 있다.

■ 삼음석(三音石)

- 황궁우 안뜰의 중앙에는 삼음석이라고 불리는, 세 덩어리의 사각형 돌(석판)이 있다. 전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석판 위에 올라서서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 다시 설명하면 북쪽으로부터 첫 번

째 돌 위에서 손뼉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한번 돌아오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돌에서 하면 두 번, 세 번째 돌에서 하면 세 번을 각각 들 수 있다. 평상시에는 세 번까지 밖에 들 수 없지만, 밤에 조용할 때 듣거나 기구로 측정하면 끊임없이 소리가 반사되어 돌아온다고 한다.



원구단으로 오르는 계단. 3층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오르면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낸 동근 제단이 있다.

■ 황궁우(皇穹宇)

- 하늘신, 즉 상제(上帝)의 위패를 모신 일종의 사당이다. 단층으로 지은 원형의 목조건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역대 황제들의 위패도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황궁우의 좌우에는 동배전과 서배전이 있다. 동배전은 황제의 별인 북두칠성을 비롯해 해신, 수성, 금성, 화성 등 태양계의 별신을 모셨고, 서배전은 달신, 바람신, 구름신, 천둥신 등 자연현상을 신격화해 모시고 있다. 특히 지구의 위성인 달을 동배전이 아닌 서배전에 모셨다는 점에서 당시 중국인들의 과학적인 우주관을 엿볼 수 있다.



황궁우. 청색 지붕에 둥근 건물로 상제를 모신 사당이다.

■ 기년전(祈年殿)

- 천단의 상징이자 핵심 건물이 기년전이다. 황제가 매년 곡식을 바치며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하던 곳으로 제단인 기곡단 위에 사당이 기년전이 올라와 있는 형태이다. 원구단의 제사가 하늘의 뜻을 받아 인간세상 [천하]를 대리통치하는 천자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기년전의 제사는 농경사회였던 중국에서 만백성의 어버이이자 현실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기년전.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 기년단으로 오르는 3단의 석대는 모두 백옥으로 만들어졌는데 각 층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다. 기년전은 높이 38m, 둘레 30m의 원형 목조건물로 웅장하고 화려하다. 둥근 천장의 남색 유리기와는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 있고 외벽은 붉은 색 창틀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 밖으로는 3층으로 보이는 기년전의 내부는 천장까지 뚫려 있다. 기년전을 떠받치는 안쪽의 4기둥은 금박으로 처리되어 가장 크고 화려한데 춘하추동 4계절을 상징한다. 그 주위에 각각 12개의 기둥이 두줄로 둘러싸고 있다. 그 중 안쪽의 12개는 12달을 상징하며, 바깥쪽의 12개의 기둥은 하루 24시간을, 24개 기둥 전체는 24절기를, 그리고 24개의 기둥과 안쪽의 4개를 합쳐 28개의 기둥은 별자리인 28숙을 상징한다.


 원구단에 올라가는 계단의 총 수는 몇 개일까요?


 원구단의 천심석에 올라 하늘을 향해 자신의 소원을 크게 외쳐봅시다. 하늘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회음벽에서 서로 소리를 듣는 실험을 해 봅시다. 먼저 돌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회음벽의 동쪽에 서고, 다른 사람은 서쪽 벽에 섭니다. 그리고 벽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얘기해서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지 확인해 봅시다.


 삼심석에서 박수를 쳐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돌 위에서 박수를 쳐서 소리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돌 위에서 박수를 쳐서 소리가 두 번 돌아오는 지 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 위에서 박수를 치고 되돌아오는 소리가 세 번 들리는 지 잘 들어 봅시다. 소리를 확인했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친구들과 얘기해 봅시다.

 기년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조각을 자세히 살펴 봅시다. 1층 계단에 새겨진 돌에는 어떤 모습이 새겨져 있나요? 2층 계단에 있는 조각은 무엇인가요? 3층 계단에 새겨진 조각은 무엇일까요? 각 층마다 조각이 다르다면 왜 다를까? 그리고 각각의 조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얘기해 봅시다.

 기년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조각을 자세히 살펴 봅시다. 1층 계단에 새겨진 돌에는 어떤 모습이 새겨져 있나요? 2층 계단에 있는 조각은 무엇인가요? 3층 계단에 새겨진 조각은 무엇일까요? 각 층마다 조각이 다르다면 왜 다를까? 그리고 각각의 조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얘기해 봅시다.

 기년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조각을 자세히 살펴 봅시다. 각 층마다 구멍이 뚫려있는 조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각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각 층마다 새겨진 조각은 어떤 동물 모양인가요?

 기년전 안에 있는 기둥의 개수를 세어 봅시다. 각 기둥이 상징하는 의미를 적어 봅시다.

 천단의 중심 건물은 모두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친구들과 얘기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천단과 천자사상



다음 글을 읽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봅시다.

1. 중국의 천하관과 천자

옛 중국에서는 세계를 그와 비슷한 개념인 “天下(천하)”라고 불렀다. 절대자의 대명사격인 하늘, 즉 천(상제)에 대한 생각이 생긴 것은 역사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은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나라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인 제(帝)가 모든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제(帝)를 우주 삼라만상의 조물주, 자연법칙을 운행하는 규제자,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고 천명과 천벌을 내리는 불가항력의 절대신으로 인식했다.

왕은 천제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살아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그리고 왕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의 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을 위해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많은 보물을 함께 묻고 심지어 말과 노예를 왕과 같이 묻었다.

주나라 왕조 건국이후, 천자의 관념에 변화가 생겼다. 하늘의 아들을 뜻하는 천자(天子)라는 관념은 그대로 계승했지만 천자가 하늘의 자손이라고 해서 바로 천하를 다스릴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주나라는 은나라 왕이 덕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 은나라를 멸망시켰다고 선전했다. 이후 하늘은 덕이 있는 왕을 선택한다고 하는 천명사상과, 왕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덕치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1. 중국의 왕을 천자(天子)라고 부르는 이유를 써 봅시다.




2. 천자(天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일까요? ‘천명사상’과 ‘덕치사상’을 넣어서 글을 써 봅시다.



3. 현대의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과거의 왕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친구들과 얘기를 해 보고 적어 봅시다.

옛날 왕이 되기 위한 자격	현대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

 다음 글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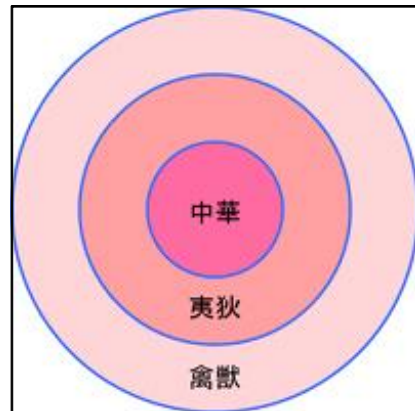
중화사상 - 중국 중심주의 사상

천자가 다스리는 천하는 어디까지일까? 중국인의 생각에 천하는 단순히 중국이 아니라 천상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하늘 아래의 모든 땅과 바다를 포함한 전체 공간, 즉 세계 전체라고 생각했다. 즉 천자가 다스리는 천하는 지구상의 모든 땅과 바다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은 천자의 백성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세상의 중심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화사상은 세계를 천하의 중심이자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진 ‘중화(中華)’와 그 밖의 오랑캐(이적(夷狄))로 나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중앙에 놓고 동서남북의 이민족과 국가들을 각각 남만(南蠻)·북적(北狄)·동이(東夷)·서융(西戎)으로 구분하여, 중국의 천자(天子)가 모든 이민족을 교화(教化)하여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천하국가관’을 만들었다.

중화사상의 원칙에 따르면, 어떤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라도 천자의 신하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천자의 신하가 된 주변 국가와 민족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조공을 받침으로써 자기 나라를 다스릴 권리를 황제에게 인정받아야 했다.

만약 조공을 받치지 않으면 힘으로 정복해서 억지로라도 교화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인들의 천하관. 중화를 중심으로 다른 세계는 오랑캐, 그 밖은 짐승[금수]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의 대외정책 - 사대교린

조선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사대교린(事大交鄰)이었다. 사대교린(事大交鄰)이란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과 교류한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의 세계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방민족이 다수였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생존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대교린정책이 합리적인 외교정책이었다.

조선은 중국의 중화사상을 받아들여 명(明)에 대해서는 큰 나라를 섬기는 '사대'를,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한 단계 떨어진 나라로 생각하고 일부 지역을 통해서 외교관계를 맺는 '교린' 정책을 폈다. 근대 이전에 동아시아의 외교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다. ()이란 중국의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주변 민족이나 국가가 사신을 보내 일정한 공물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황제는 ()의 대가로 많은 물건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제적인 무역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1. 우리 민족을 ‘동이(東夷)’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이’ 의 뜻을 이야기해 보고 듣기에 좋은 뜻인지 고민해 봅시다.



2. ()안에 들어갈 말을 써 봅시다.



3. 조선이 중국의 중화사상을 받아들여 사대교린의 외교정책을 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다음 글을 읽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봅시다.

우리나라의 천단 = 환구단

환구단(圜丘壇)은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단(壇)이다. 원구단(圓丘壇)이라고도 하는데, 예로부터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에 제사지내는 단은 둥글게, 땅에 제사지내는 단은 모나게 쌓았기 때문이다. 사적 157호로 지정된 환구단은 고종대에 있었던 환구단 터로,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조선히텔 자리이다.

1897년(고종 광무 원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환구단에 나아가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드린 후 황제에 즉위했다.

? 1. 중국의 텐탄에 있는 원구단과 황궁우, 그리고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환구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 봅시다.

	 <p>중국 천단의 황궁우</p>	 <p>환구단의 황궁우 사진</p>
공통점		
차이점		

? 2. 고려시대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초기를 제외하고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왜? 천제를 지내지 않았을까요? 조선의 외교정책인 '사대교린' 과 연결지어 설명해 봅시다.

? 3.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환구단을 만들고 친히 나아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종이 환구단을 만든 이유를 당시 조선의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얘기에 봅시다.

내 생각에는	친구들의 생각은


-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여행을 홍색 관광이라고 한다.)시설의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는 중국국가박물관은 천안문광장(天安门广场, 톈안먼광장)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1호선과 수많은 버스노선을 통해 올 수 있다. 원래 있었던 중국역사박물관과 중국혁명박물관을 기초로 건설되었으며, 현재는 국가 문화부에 속해 있다.
- 2003년 2월 28일 정식으로 개장된 중국국가박물관은 역사와 예술을 테마로 중국의 유구한 문화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종합박물관이다.
- 1959년 8월 톈안먼광장 동쪽의 양쪽 빌딩에 정식으로 건립됐으며, 총면적 6만5천 평방미터로 당시 베이징 10대 건축물 중 하나였다. 동년 10월 1일 국가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다.
- 국가박물관은 수집, 고고, 소장, 연구, 전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곳에 소장된 문물들은 중국 고대, 근현대, 당대 역사를 대표하는 진귀한 문물들로 기본전시와 각종 테마전시를 통해 중국 국내 및 해외 관광객들에게 중국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화려한 중국문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세계 문명과 세계의 우수한 문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 현재 국가박물관의 기본 전시로는 중국역사와 중국혁명 2개 주제를 메인로 하고 있다. 중국역사 전시는 중국의 역사를 역사 발전 과정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170만년 전의 원모인(元谋人)부터 시작해 1911년 봉건왕조 멸망까지 역사를 9천여 점의 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문물, 도표, 모형, 텍스트 설명을 통해 중국 고대의 각 역사적 시기에 있었던 중요사건, 중요인물, 각 민족이 중국 대륙에서 세운 위대한 업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 중국혁명 테마 전시는 ‘중국혁명사’ 전시와 ‘사회주의혁명과 혁명 초기 역사 진열’로 나뉜다. 이 중 중국혁명사는 10개 부분으로 나뉘며, 4천5백점이 넘는 문물, 문헌, 사진, 규모, 회화, 조각 등을 통해 중국 근대역사의 발전과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에 관한 내용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 현재 국가박물관 건물은 2007년 정식으로 확장공사를 실시해 2009년 완공되었다. 확장 공사 실시 후 6만5천 평방미터였던 면적이 25만 평방미터까지 확장됐으며, 각종 시설이 개선되고 부대시설 역시 현대화되었다. 이는 최근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중국의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국가박물관은 관람객들이 많으므로 뛰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서는 안됩니다. 사진 촬영의 경우 절대로 플래시를 터뜨려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 촬영을 금지시키지는 않습니다.

 각 시대 별로 자신의 맘에 드는 유물을 찾아 사진찍기를 해봅시다. 사진을 찍을 때는 절대로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셔터소리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전시된 유물 중에서 우리 나라와 관련있는 유물을 찾아 봅시다.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유물이 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영향을 끼친 유물 등이 많이 있습니다.

1. 구궁(고궁박물관故宫博物院-자금성(紫禁城: 썬진청)) 소개



구궁박물관(자금성) 전경. 건물의 벽은 자색을 띤 붉은 색으로, 지붕과 전각은 황색으로 꾸몄다. 베이징 관광국 홈페이지 제공.

- 세계문화유산이자 전국중점문화보호물로 베이징(北京, 북경)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 명, 청나라 시절의 황궁이었다.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나 청 왕조가 무너지면서 청나라 황제가 퇴위하게 된다. 신해혁명 후 이 궁전은 국가에 회수되었지만 푸이가 잠시 궁전에 머무르는 것이 허가되었다. 1914년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손제 푸이(溥儀, 부의)가 자신이 거처하던 “궁금(宮禁, 궁진)”에서 추방된 후,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 1925년 10월에 구궁(故宮, 고궁)박물관이 설립되었고, 1933년 중일 전쟁으로 인해 구궁의 중요한 문물들이 상하이(上海, 상해), 난징(南京, 남경), 쓰촨(四川, 사천) 등지로 운반되었다가 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다시 베이징으로 반환되어 왔지만 나중에 일부 유물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쫓겨나면서 타이완(台灣, 대만)으로 가져갔다.
- 현재 구궁박물관은 자금성 건축물과 고대 예술품 및 궁정역사 유적 위주의 내용물을 주로 전시하는 대형 종합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 명나라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총 24명의 황제가 거주하며 국정을 맡아 보았던 구궁의 건축은 명나라 영락(永乐) 4년(1406년)에 착수해 영락 18년(1420년)에 완공되었다. 중국 고대 점성학 학설에 따르면 자미원(紫微垣) [동아시아의 별자리인 삼원 중 하나]이 하늘의 한복판에 위치하면 천제(天帝)가 바로 그 곳에 거주하고 천인(天人)이 대응한다 하여 황제의 거소가 자금성으로 불리는 것이라 한다.



- 총면적 72만 평방미터에 건축물의 면적만 약 15만 평방미터를 자랑하는 구궁은 궁전만 해도 9000여 칸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목재 구조물이며, 황색 유리 기와지붕, 청백색의 평평한 석좌, 으리으리한 채색화는 구궁 내부 경관의 다채로움을 더해준다. 이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황가 건축물 중 가장 큰 규모와 완벽한 보존 상태를 자랑한다.
- 구궁 주위로는 10미터 높이의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남북으로 961미터, 동서로 753미터 길이의 규모를 자랑한다. 성 바깥으로는 너비 52미터, 길이 3800미터의 해자가 둘러싸므로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구궁의 전체적인 구조는 중심 대칭형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 있다. 한 장의 벽돌과 한 장의 기와마저 중국 황제의 예식을 따라 만들어진 것을 보면 황제의 권위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궁은 구조와 기능에 따라 외조(外朝, 와이자오)와 내정(內廷, 네이팅)으로 나뉜다. 외조는 황제가 대전에서 신하들과 조회를 거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주요 건물로는 태화전(太和殿, 타이허뎨), 중화전(中和殿, 중허뎨), 보화전(保和殿, 바오허뎨)이 있다. 내정은 황제가 일상적인 정무

를 처리하고 왕후와 첩 및 그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요 건축물로는 건청궁(乾淸宮, 간청궁), 교태전(交泰殿, 자오타이덴), 곤녕궁(坤寧宮, 쿤녕궁)이 있다.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을 합쳐 삼다전(싼다덴)이라고 부르고, 건청궁, 교태전, 곤녕궁을 합쳐 후삼궁(허우싼궁)이라고 부른다.

- 외조와 내정은 중심축상의 건청문(乾淸門, 간청먼)을 경계로 전방(남쪽)을 외조, 후방(북쪽)을 내정으로 나누고 있다. 자금성의 구조와 설계는 중국 고대 전통문화의 특색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고대 건축 예술의 집대성이자 궁전 건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 구궁박물관은 현재 대외적으로 개방된 면적이 43만 평방미터인데, 이는 삼대전(三大殿, 썬다덴), 후삼궁(后三宮, 허우싼궁)이 주가 되는 중루(中路, 중로), 무영전(武英殿, 우잉덴)이 주가 되는 외서로(外西路, 와이시루), 양심전(養心殿, 양신덴), 서육궁(西六宮, 시류궁)이 주가 되는 내서로(內西路, 네이시루), 동육궁(東六宮, 동류궁)이 주가 되는 내동로(內東路, 네이동루), 문화전(文華殿, 원화덴), 봉선전(奉先殿, 평셴덴), 녕수궁(寧壽宮, 닝서우궁)이 주가 되는 외동로(外東路, 와이동루) 등 5개의 관광노선이 있다.

2. 구궁(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의 주요 관광지 소개

- 구궁은 규모가 매우 큰 데다가 수많은 궁전들이 있기 때문에 궁궐내부를 돌아다니기만 해도 하루 만에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천안문을 지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삼다전, 후삼궁, 어화원(御花園, 위화위안)을 보고 경산(정산)에 올라 구궁 전체를 바라보고 내려 온다면 만나절이면 다 볼 수 있다.
- 삼다전은 황제가 신하들과 같이 정사를 논하거나 제위를 물려받을 때 쓰이는 장소이며, 후삼궁은 황후를 비롯한 황제의 첩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가. 삼대전(三大殿: 썬다덴)

■ 태화전(太和殿, 타이허덴)



- 자금성 내부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등급이 높은 건축물이다. 명 영락 18년 (1420년)에 지어졌으며 명, 청 시절 24명의 황제가 제위를 물려받을 때 모두 태화전에서 성대한 의식을 거행했다.
- 구궁의 정식 정문인 오문은 높이 38m에 이르는 자색을 칠한 높은 성대가 있고 그 위에 오봉루라 부르는 다섯 개의 누각이 있다. 오문 앞 광장은 황제가 명절을 축하하는 춘병을 나눠주는 행사를 열기도 했고, 전쟁에 나가는 군대의 출병과 개선 의식이 치러졌으며 황제의 뜻을 거스른 고위관리들이 '정장'이라는 벌을 받는 장소로도 쓰였다. 오문을 지나면 다시 문이 나오는데 이문이 태화문이고 태화문을 지나면 비로소 구궁의 핵심인 태화전을 만나게 된다.
- 태화전은 자금성의 정전으로 황제가 누리는 권력의 핵심이자 천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황제의 즉위식이나 황후의 책봉을 비롯해, 대규모 출정식이나 외국 사신 접대, 과거 시험의 전시 합격자 발표 등 황제가 주관하는 중요한 국가행사가 열렸다.
- 태화전 주변에는 금도금을 한 소방용 물동이[드무]가 있는데, 이것 역시 의화단이 난이 진압당할 때 서양 8국 연합군의 손에 수난을 당했다. 구궁에 들어온 군인들이 물동이 표면에서 금을 벗겨간 것이다. 물동이에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서양 연합군의 병사들에 의해 도금한 금칠이 벗겨진 드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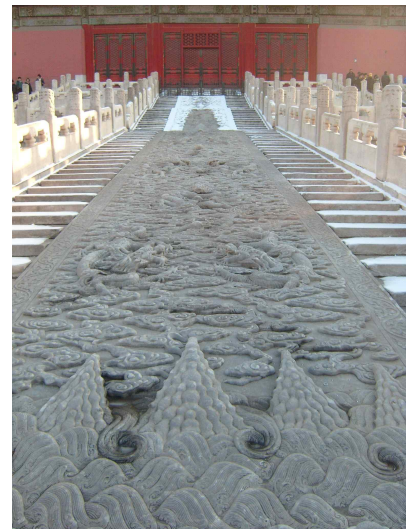
■ 중화전(中和殿, 중허덴)

- 태화전을 지나면 중화전이 나온다. 중화전은 약 28m 길이의 정사각형 건물로 규모는 작지만 단정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황제는 정무를 보기 전에 이곳에서 쉬면서 내각의 예를 받은 뒤, 보관되어 있는 가마를 타고 태화전에 이르렀다.



■ 보화전(保和殿, 바오허덴)

- 중화전을 지나면 삼대전 중 마지막인 보화전을 만난다. 보화전은 태화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면 9칸, 측면 5칸으로 ‘천자의 지위’를 상징하는 건물구조는 태화전과 같다. 보화전에서는 황제 앞에서 마지막 과거시험을 치르는 전시가 행해졌다. 전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면 관직에 올라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보화전 뒤 중앙계단에는 거대한 대리석 조각인 ‘대석조(大石彫: 다스다오)’가 있다. 여기에는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9마리의 용이 새겨져 있는데 거대한 대리석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총 250톤이 넘는 이 거대한 대리석을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옮기기 위해 겨울철 길가에 넓고 깊은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 빙판을 만든 뒤에 1만여 명의 사람과 1,000여 마리의 말이 동원되어 끌고 왔다고 한다.



보화전 뒷 편 계단의 ‘대석조’. 조각이 끝나는 지점까지 한 개의 거대한 대리석을 새겨 만들었다.

나. 후삼궁(後三宮: 허우싼궁)

■ 건청궁(乾淸宮, 간청궁)



- 건청궁은 내전의 정전이라 할 만하다. 황제의 침실과 일반 집무실로 사용되었으며, 내부 정 중앙에는 황제가 앉는 보좌가 있는데, 극박을 하고 루비와 에메랄드를 박아넣어 치장을 했으며 팔걸이와 등받이는 모두 금룡으로 휘감았다. 그 뒤편으로 청나라의 순치제(1644~1661)가 쓴 ‘정대광명(正大光明)’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옹정제 이후로는 이 편액 뒤에 황제가 내정한 계승자 이름을 써서 보관해 두었다가 황제가 사망하면 꺼내 보고 황제 계승자를 선포했다. 이것을 ‘태자밀건법’이라고 한다.

■ 곤녕궁(坤寧宮, 쿤녕궁)

- 황후가 거주하는 궁으로 땅을 의미하는 ‘곤(坤)’자를 넣어 곤녕궁으로 불렸다. 이것은 전통적인 관념으로 황제가 하늘이라면 황후는 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황후의 침궁인 곤녕궁은 명대까지는 실제로 황후가 거주했으나 청대에는 사당으로 쓰였다.
- 한편 황제의 비와 빈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세워진 동육궁과 서육궁에 기거했다.



황후의 침궁이었던 곤녕궁.

- 명나라 말기에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자 승정제는 황후와 공주들을 여기에서 죽이고 자신은 신무문 밖 경산에 올라 회나무에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교태전(交泰殿: 자오타이덴)

- 황제와 황후의 합방이 이뤄지던 공간이 교태전이다. 명대에는 황후의 거소로 쓰인다. 청대 이후에는 황후를 정식으로 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황후는 매년 원단과 동지, 황후의 탄신일에 이곳에서 대신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교태전은 우리나라의 경복궁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태전에는 지붕의 용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 그 외 주요 건물들

■ 이화현(颐和轩, 이허쉬안)

- 이화현은 자금성 동북쪽에 있는 건축물 중 하나이다. 남쪽으로는 악수당(乐寿堂, 러서우탕)이 있고, 북쪽으로는 경기각(景祺阁, 징치거)이 있다. 공자전(工字殿, 궁쯔덴)은 수레와 누각 사이의 두 개의 문이 있는 복도를 통해 접해 있다.



- 이화현은 건륭(乾隆) 37년(1772년)에 지어졌으며, 가경(嘉庆) 7년(1802년)과 광서(光绪) 17년(1891년) 2번에 걸쳐 다시 지어졌다.

■ 진보관(珍宝馆, 전바오관)

- 진보관은 제1실인 양싱덴, 제2실인 악수당, 제3실인 이화현으로 각기 나누어져 있다. 청 황실의 금은보화가 수집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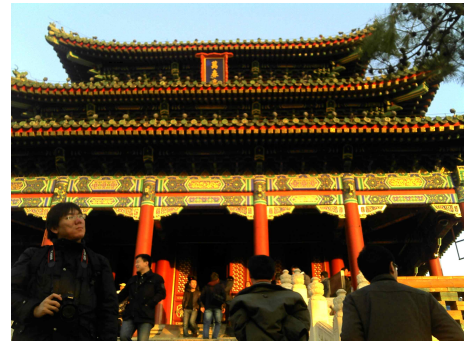
3. 경산공원[景山公園, 징산공원]

- 구궁 북문으로 나가면 큰 길 건너 경산공원[景山公園, 징산공원]이 있다. 경산의 높이는 약 43m이고, 해발고도는 88.7m이다. 베이징[北京] 중심에 있는 공원으로 10분 정도 길을 따라 오르면 정상에서 자금성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징산 정상 만춘정에서 바라본 구궁의 모습이 아름답다.

- 원래 경산은 금(金)나라 때 이궁(離宮)을 만들면서 지금의 베이하이[북해: 北海]를 관 흐를 쌓아 언덕을 만들었으며, 원(元)나라 때는 궁정의 정원이었다. 명(明)나라 때인 1403~1424년에 자금성의 통쯔허[筒子河]를 관 흐를 쌓아 5개의 봉우리를 만들고, 청나라의 건륭제(乾隆帝)가 그 봉우리 위에 만춘정(萬春亭)을 비롯하여 정자를 세웠다. 경산의 옛 이름은 만수산[완서우산: 萬壽山]이며 명, 청(淸) 때는 궁궐의 뒤뜰이라는 의미로 ‘자원(紫苑)’이라고 불렀다.



징산 정상의 만춘정. 이곳에서 자금성을 내려다 볼 수 있다.

- 1644년 이자성의 난 때 농민봉기군이 베이징을 공격하자, 당시 황제였던 숭정제(崇禎帝)는 궁궐에서 왕후와 왕족들을 죽이고 이곳에 올라 목을 매 자살하였다. 1655년에 경산[景山, 징산]이라고 개칭하였다. 1949년 이후 공원으로 개방하였다.
- 5개의 봉우리가 동서로 있는데 봉마다 정자가 세워져 있고, 가운데의 만춘정(萬春亭)은 그 당시 베이징에서 최고로 높은 곳이었다. 화원과 수황전(壽皇殿) 등 전각이 있고 서쪽 가까이에 백탑(白塔)이 솟아 있는 베이하이구룡이 보인다.



1. 태안면을 건너면 성을 빙 돌아 흐르는 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2. 쫄진청의 실제 정문인 오문(우문) 앞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 봅시다. 오문의 벽을 비롯해서 궁궐의 벽이 높은 이유를 친구들과 얘기해 봅시다.



3. 태화전 앞에서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어 봅시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조선의 궁궐에서 태화전과 같은 역할을 한 건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4. 태화전 앞에는 구리로 만든 커다란 동물이 한쌍 있습니다. 동물의 이름과 동물을 문 앞에 세워둔 이유를 알아 봅시다. 그리고 암컷과 수컷을 가려 봅시다.



5. 태화전에 있는 커다란 동으로 만든 향아리는 우리 말로 ‘드무’ 라고 합니다. ‘드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금철이 벗겨져 있는 이유를 알아 봅시다.



b. 건청궁의 내부에 걸려 있는 편액에 써있는 글씨를 읽어 봅시다.



7. 경산궁원의 정상에 올라 자금성을 내려다 보면서 궁궐 안의 건물들을 찾아 봅시다. 또 친구들과 자금성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자금성이 구궁박물관이 된 까닭



다음 사진을 보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봅시다.



1. 텐안먼(천안문)에 걸린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양 옆에 써 있는 글을 읽어 봅시다. 그리고 사진 속의 인물과 두 글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을 찾아 봅시다.

사진의 인물은 ()이다.
왼쪽 글은 (), 오른쪽 글은 ()이다.

그의 사진과 두 개의 글이 천안문에 걸린 이유는



다음 글을 읽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 후 자신의 의견을 글로 적어 봅시다.

자금성과 천자

서기 1600년 경, 중국제국은 지구상의 모든 단일국가 가운데 가장 크고 세련된 국가였다. 이 무렵 러시아는 막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기 시작했고, 인도는 무굴 제국과 힌두교 통치자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으며, 멕시코와 페루는 스페인 정복자와 그들이 들여온 전염병으로 인해 처참하게 멸망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중국에 필적할 만한 영토를 가진 나라는 없었다. 게다가 당시 중국의 인구는 1억 2천만을 헤아려 유럽의 모든 나라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쿄토에서 프라하까지, 그리고 텔리에서 파리까지 각 수도에는 거대한 국가적 상징물이 있기 마련인데, 그 도시들 가운데 베이징에 있는 궁전처럼 정교함을 자랑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엄청난 성벽 뒤에 자리 잡은 베이징의 황궁에서는 번쩍이는 황금색 지붕과 자금성의 넓은 대리석 정원이 황제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었다. 줄지어 서 있는 각 건물과 알현실의 넓은 계단과 거대한 문들은 기하학적 순서로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베이징 남쪽을 향해 세워진 아치문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서 모든 방문자들에게 만물의 이치가 중국어로 하늘의 아들[天子], 바로 황제에게 체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1. 보화전 뒤편 계단에 있는 거대한 대리석을 커다란 돌조각이란 의미로 ‘대석조(大石彫: 다스다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새겨져 있는 용은 모두 몇 마리일까요? 그리고 용의 수가 의미하는 것을 위 글과 관련지어 얘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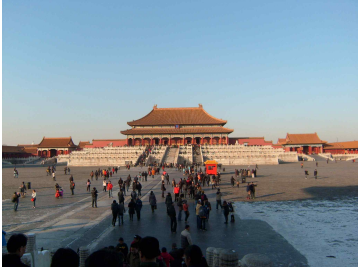
2. ‘대석조’ 를 옮기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궁궐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의 생활과 자금성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서로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3. 궁궐박물관의 건물은 모두 황색으로 그리거나, 칠해져 있습니다. ‘황색’ 의 의미를 황제와 연관지어 얘기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4. 다음 두 건물을 보고 서로 다른 점을 찾아 봅시다.




자금성 대화전



경복궁 근정전





제4장 셋째날

01. 주구점 유적
02. 노구교
03. 번가원 시장



1. 주구점(저우커우뎨 - 周口店) 유적 소개

- 중국 선사시대 유적의 대표적인 곳으로 베이징원인[北京原人]과 산정동인[山頂洞人], 신동인[新洞人]의 화석이 출토되었다. 1987년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주구점 유적은 중국 베이징[北京] 광산구[房山區] 저우커우뎨[周口店]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1923년에 약 70~20만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징원인[北京原人]의 화석이 출토되었으며, 1933년에는 2만여년 전 후기 구석기시대의 산정동인[山頂洞人]의 화석도 출토되었다. 1973년에는 베이징원인과 산정동인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10만년 전 신동인[新洞人]의 화석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수만점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어 1987년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물 화석을 용골(龍骨)이라 부르며 약으로 이용했는데, 저우커우뎨[周口店] 부근에는 동물 화석이 많이 출토되어 룡구산[龍骨山(용골산)]이라 불리는 구릉이 있었다. 1918년 스웨덴의 지질학자인 안테르손(Johan Gunnar Andersson, 1874~1960)은 룡구산[龍骨山]의 석회동굴에서 구석기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1921년부터 미국의 고생물학자인 그레인저(Walter W. Granger, 1872~1941), 오스트리아의 고생물학자인 츠단스키(Otto Zdansky, 1894~1988) 등과 함께 발굴을 시작하였다.
- 안테르손 등은 1921년부터 1926년까지 저우커우뎨[周口店]에서 발굴을 진행해 석영(石英)이나 부싯돌(Flint)의 몸돌[石核]과 격지[剝片]로 만든 굽개, 찌르개, 찍개 등의 편석기[打製石器]와 골각기(骨角器), 동물의 화석 등을 발견해 이곳에 구석기 유적이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1923년 현장에서 발굴을 계속하던 츠단스키는 출토된 화석 가운데에서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의 아종(亞種)인 베이징원인의 이빨을 발견했고, 안테르손도 스웨덴으로 보낸 화석에서 어금니 2개를 발견했다. 1927년부터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의 후원으로 저우커우뎨에 대해 대규모 추가 발굴이 진행되어, 1929년 중국의 고인류학자인 페이원중(裴文中, 1904~1982)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베이징원인의 머리뼈 화석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1933년 용골산[龍骨山] 꼭대기의 동굴(山頂洞)에서는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과 슬기슬기사람(Homo sapiens sapiens)으로 분류되는 산정동인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현대의 동아시아인들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저우커우톈의 발굴은 페이원중, 양중젠[楊鍾健, 1897~1979], 자란포[賈蘭坡, 1908~2001] 등의 학자들에 의해 1937년까지 계속되었지만,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단되었다. 베이징원인과 산딩둥인의 화석은 1941년 미국으로 운송되던 도중에 일본군에 압류되었다가 분실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수립 이후 저우커우톈 발굴이 재개되어, 베이징원인의 이빨과 머리뼈 조각, 아래턱뼈, 침골[枕骨] 등이 추가로 발굴되었다.
- 지금까지 저우커우톈에서는 화석인류의 뼈가 40개체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수만 점의 석기(石器)가 출토되었다. 호모에렉투스인 베이징원인의 화석이 다양한 지층에서 출토되었을 뿐 아니라, 초기 호모사피엔스로 분류되는 신둥인,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인 산딩둥인의 화석이 한 지역에서 출토되어 인류의 진화 과정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전기 구석기 시대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까지 유물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동물과 식물 등의 화석과 석기, 재층[灰層] 등 불을 사용한 흔적 등도 발견되어 자연 환경과 인류 문화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원인동 입구. 길이 100여 미터에 달하는 원인동에서는 50만년 전 인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2. 주구점(저우커우톈 - 周口店) 유적 주요 탐방지

가. 베이징 원인 유적(원인동: 猿人洞)

- 주구점 유적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용골산(龙骨山, 룡구산)에 위치해 있으며, 1921년에 발굴이 시작되었다. 베이징원인은 대략 50~60만년 전부터 약 20만년 동안 이 곳에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 동굴은 여러 번의 발굴을 거쳐 몇 십 년간 200점에 달하는 인류 화석[40개의 다른 남녀 원인(猿人)을 포함], 수만 점의 석기, 잿더미 층과 100종에 달하는 포유류 화석을 발견했다.

나. 주구점 박물관

- 주구점(周口店, 저우커우텐) 유적 박물관은 1953년 원인(猿人) 진열관을 개축한 것으로 600여 점의 문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유적의 고고학적 발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기본 배치는 역사 회고, 북경원인(北京, 베이징위안런)의 체질 특징과 문화 유물, 생존 환경, 주구점(周口店, 저우커우텐) 유적의 각 화석 지점, 저우커우텐 유적의 최신 성과전 등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물 화석과 불을 사용한 유적의 깃더미 등 전시된 유물 모두가 세계에서 보기 힘든 진품이다. 현재 관 내부에는 저우커우텐 유적군에서 출토된 인류 화석 모형, 동물 화석, 석기 등의 전시품이 있다.



산정동 입구. 이곳에서 후기 구석기에 해당하는 산정동인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다. 산정동 유적

- 원인동이 있는 산 정상에는 또 하나의 동굴이 있다. 이곳은 산정동이라고 부르는데, 1933년 페이원중은 이곳에서 1만 8,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산정동인(山頂洞人)의 화석을 발견했다.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해당하는 인류로 이들이 높은 곳에 집자리를 마련한 것은 평야지역에서 사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산정동인은 원시 몽골인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체질적으로 현대인과 비슷했다. 또한 장식품 제조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보아 구석기 말기에 해당하는 문화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구점 유적박물관 입구. 베이징원인의 얼굴을 복원한 동상이 입구에 서있다.



1. 원인동에 가면서 서있는 동물 모형들과 사진을 찍어 봅시다.



2. 베이징 원인이 동굴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3. 박물관 입구의 베이징원인 동상과 자신의 모습이 닮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아니라면 그 이유를 써 봅시다.



4. 박물관에서는 베이징원인의 생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보고 선사시대의 인류의 생활과 현대인의 생활 중 어느 쪽이 행복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인류의 기원을 찾아서



다음 글을 읽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봅시다.

1914년 스웨덴 지질학자 요한 군나르 안데르손은 광물 자원에 대한 기술 자문 자격으로 처음 중국에 갔다. 그는 지질 조사를 하면서 중국의 화석 유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주었다. “베이징에서 서남쪽으로 50km 떨어진 저우커우톈이라는 곳에서 용골이 많이 나옵니다.” 용골은 고대의 동물화석으로 중국사람들은 이것을 한약재로 여겼다.

1918년 안데르손은 저우커우톈을 발굴하여 처음으로 동물의 화석들을 찾아냈다. 이어 1926년 오스트리아의 오토 즈단스키가 저우커우톈에서 인류의 어금니 화석을 발견했다. 이 화석은 호모 에렉투스로서 분류되어 ‘베이징 원인’으로 불렸다. 1929년 25세의 중국 과학자 페이윈중이 동굴에서 인류의 머리뼈 화석을 발견했다. 이 화석의 발견으로, 베이징 원인은 뇌의 용량이 약 1,000cc 정도이며 기원전 50만년 전 쯤 살았던 것이 밝혀졌다.

중국지질 조사소는 저우커우톈에서 발굴을 계속하여 1936년 중국의 고인류학자 자란포가 머리뼈 3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베이징 원인의 두개골을 포함한 최초의 발굴물들은 감쪽같이 사라져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1929년 최초의 발굴 이후 계속 진행된 조사작업은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으로 중단되었다. 그 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베이징 원인의 두개골이 보관되어 있던 세허의원의 금고를 열었을 때, 베이징 원인의 유골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당시 금고를 열 때 참관했던 두개골의 최초발견자 페이윈중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유골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유골은 언제 어떤 경로로 사라진 것일까? 현재로서는 발굴작업을 진행했던 미국의 록펠러재단 측이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유골을 안전한 곳으로 운반하다 도중에 분실한 것이 아닐까 추정할 뿐이다. 이 사건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현재 박물관에 전시된 유골은 모조품이다.

(눈으로 보는 세계역사4 『중국 문명과 동아시아』, 교원. 조관희, 『세계의 수도 베이징』, 창비.에서 발췌, 정리함)



1. 사라진 베이징 원인의 두개골은 어디로 갔을까? 친구들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두개골이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추리해 봅시다.



2. 주류점 유적지 입구의 안내글에는 “노동이 인간을 만들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서로 다른 점을 ‘노동’ 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찾아 봅시다.

1. 유적소개

- 루저우차오(노구교, 卢沟桥)는 중화 인민 공화국 베이징 시의 중심가에서 약 15km 떨어진 평타이구를 흐르는 루저우허(현재는 용딩허)에 가설되어 있는 석조의 아치교이다.
- 루저우차오는 금나라 때인 1192년에 완성되었고 수해로 훼손되었다가 이후 복원되었다. 전체 길이는 266.5m이고 11개의 아치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아치는 길이 11m, 편평률 0.69의 타원형을 이룬다. 다리의 난간에는 각각 다른 표정과 모습을 한 총 501기의 사자의 조상이 놓여 있다. (조사에 의하면 사자의 수는 총 281개이며, 그밖의 작은 사자들까지 합하면 그 수가 485여 개에 이른다.-네이버백과)이 사자상의 수를 통행인이 정확하게 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는 '셀 수 없는 것'을 "루저우차오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일찍이 이 곳을 방문한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저서 동방견문록의 제4장에서 이 다리를 "온 세상 어디를 찾아도 필적하는 것이 없을만큼 훌륭하다"라고 적었다. 이것 때문에 서구에서는 이 다리를 마르코 폴로의 다리(Marco Polo Bridge)라고 부르고 있다.
- 루저우차오의 이름은 1937년 7월 7일에 이곳에서 일어난 루저우차오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후에 노면이 포장되어 자동차의 통행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다리의 노후화가 현저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1980년대에는 사적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복원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자동차의 통행은 모두 금지되었다. 노면은 포장된 채로이지만 다리의 중앙부에는 옛날의 돌바닥의 일부가 복원되어 있다.
- 1981년에는 노구교사료진열관이 개설되었다.<위키백과>



2. 유적주요탐방지

가. 비석

- 노구교의 동서양쪽 입구부근에는 두 개씩의 돌비석이 있다.
- 동쪽에 있는 것 중 하나는 <강희중수노구교비>로 강희가 노구교를 개보수하게 된 연유와 내용이 새겨졌다. 또 하나는 <노구효월비>는 건륭이 직접 썼다는 노구효월 턱자와 더불어 노구시가 적혀져 있다.
- 서쪽에 있는 비석 중 하나는 <건륭증습노구교비>로 건륭이 노구교를 중수하게 된 배경과 내용이 새겨져 있다. 노구교의 서쪽입구 안시교 북쪽에 있는 것이 <강희촬영정하시비>로 영정하를 읊은 시와 더불어 용들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 노구교는 강희년간에 큰 홍수를 겪게 되어 중수(重修)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으나 건륭제가 <노구효월>이라는 어필을 남긴 것처럼 연경팔경의 으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노구효월비



건륭증습노구교비

나. 사자상

- 금나라 (1189-1192년)에 세워져 오늘까지 8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노구교는 당시에 서쪽에서 북경도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한다. 노구교가 건축되기 이전에는 임시부교와 나무다리 정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 281개의 매 기둥마다 새겨져

있는 돌사자는 금, 원, 명, 청 네 개 시대의 것이며 대부분이 명, 청 시대의 돌사자이다. 돌사자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매우 생동감있게 조각되어 있어 노구교 석각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다. 화표

- 화표는 기둥모양의 표지성 건축물로 한나라때 크게 유행하였으며, 주로 궁전, 종묘 등의 건축물 앞에 세웠으며 혹은 교통요지나 신도 등에 세워지기도 하였다.
- 전설에 의하면 요임금 시절에는 조정 밖에 북을 걸어놓고 의견이 있는 사람이 북을 치면 제왕이 그것을 듣고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순임금 시절에는 교통 요지 여러 곳에 나무기둥을 설치해 놓고 사람들의 의견을 써는데 사용하였다고 한다. 후일 이것이 큰 길 입구에 일종의 표지로 활용되어 이를 표목이라 하는데, 이것이 화표의 기원이다.
- 땅의 경계와 도로의 거리를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오늘날의 교통 표지판 역할이었다는 주장과 화표의 위에 올려둔 개과의 동물로 보아 원시부족시대의 토템의 상징이라는 설, 고대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도구(나무를 세우고 해의 그림자로서 방위와 절기를 따짐)라는 설도 있다.
- 화표는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받침대(대좌), 기둥(몸통, 뿔리를 틀고 있는 용이 새겨져 있는 기둥), 머리(승로반과 그 위의 준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표의 상부에는 승로반(承露盤)이라는 쟁반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쟁반에 고인 이슬을 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한다.
- 대표적인 화표로 천안문 앞의 화표들은 명(明) 영락(永樂)시기에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9.57m, 그

무게는 20톤에 달한다. 화표의 기둥은 정팔면체이며 기둥 표면에는 하늘로 솟구치는 용을 조각하여 황제의 영역임을 표시하였다. 북쪽에 있는 화표는 머리를 자금성 쪽으로 보고 있는데 황제가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을 보살피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남쪽에 있는 화표는 머리는 남쪽으로 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간 황제가 빨리 돌아와 조정을 돌보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화표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고대 제왕이 부지런히 국정에 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사자 조각 중 맘에 드는 조각 찾아서 똑같은 행동이나 표정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어 봅시다.



2. 노구교에는 많은 다양한 모습의 사자가 있지만 크기와 모양에서 다른 사자상과 뚜렷이 구별되는 사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자인지 찾아보세요.



3. 노구교에서는 사자상과 비석의 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관찰하면 또다른 모습의 동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을 찾아보고 왜 이 동물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다리 끝부분에 있어요!)



생각 키우기



다음 글을 읽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봅시다.

1.

노구교는 북경의 서남쪽 15km에 위치한 다리이다. '노구교 사건'은 중·일 전쟁의 발단이 되는 사건으로 이를 '7.7사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37.7.7 노구교 부근에서 야간전투훈련을 실시하던 일본군 중대는 실탄사격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즉시 점호를 했는데 병사 1명의 행방이 묘연하여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함으로 '노구교사건'이 벌어졌다. 묘연했던 병사는 용변을 보기 위해 점호에 늦은 것이 판명되었지만, 이미 대대장이 연대장에게 연락을 취해 '단호히 전투를 개시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다음날인 8일 중·일 양군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협상을 통해 9일 정전하고 11일 협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군부는 중국을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동해 7월 화북을 공격, 7월 28일 북경을 점령하였으나 중국이 완강히 저항하여 전면 전쟁이 되었다.

일본은 계속 대군을 투입하여 1937년 12월 국민정부의 수도 남경을 점령하고 약 30만명의 희생자를 낸 '남경대학살' 사건을 일으켰다.

2.

몽골은 1213년 강동성에 웅거한 거란족을 물리치고 난 뒤부터 고려에 큰 은혜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고 해마다 동진국을 거쳐 과중한 공물을 고려에 요구해 왔다.

저고여는 1221년과 1224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에 파견되었다.

한편, 동진의 포선만노는 칭기즈 칸의 서역원정중, 소식이 막연함을 호기로 삼아 몽고와의 국교를 단절하고 고려에 각기 각장을 설치하여 무역을 하자고 요청해 왔다. 난처한 입장에 선 고려는 일단 몽고와 동진 두 나라 모두 통교를 계속하며 정세를 관망하였는데, 1224년 11월 공물을 요구하러 온 저고여가 1225년 정월 함신진(의주)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 압록강가에서 피살된 사건이 일어났다.

그 무렵 금나라와 동진은 고려와 몽고를 이간할 목적으로 고려를 침범할 때 몽고복장을 하여 몽고의 소행으로 가장하고, 몽고 사신이 고려에 들어올 때는

고려사람의 복장을 하여 습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는 이 사건이 금나라 도둑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몽고는 고려와 국교를 단절하고 이 사건을 고려 침입의 구실로 삼았다.

3.

일본 군함 운요호가 1875년 9월 20일 조선 해안을 탐측 연구하기 위해 왔다고 핑계를 대고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으로 침투하였다. 해안 경비를 서고 있던 조선 수병은 예고도 없이 침투하는 일본군 보트에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일본군은 모함으로 되돌아가, 함포로서 조선에 보복 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영종진(永宗鎭 오늘날의 영종도)에 상륙하여 조선수군과 격전을 벌여, 근대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조선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무기도 다량 탈취하였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방화, 살육을 하고 퇴각하였다.

그 후 일본은 다시 강화도 앞바다에 무력시위를 하며 나타나, 이 사건의 책임을 조선에 물으며 수교통상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1. 위의 세 사건이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2. 이러한 사건들은 현대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간 뿐 아니라 개인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형제자매, 부모님, 선생님과 이러한 일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3.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필요한 것,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와 슬픔을 안겨줍니다. 위의 3가지 사건 중 한가지를 골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봅시다.

■ 이름 : 번가원구화시장/판자웬쥬우훤스창/潘家園舊貨市場

- 판자웬시장은 주말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북경의 대표적인 골동품 시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이곳 시장에 물건들은 대부분이 북경외각에 사는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새벽에 북경에 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시장이 열립니다. 현재는 예전처럼 주말에만 시장이 열리지는 않고, 평일에도 상점들이 열리지만, 판자웬시장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주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판자웬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는 토요일 오전에 서둘러서 가보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물건이 다 팔리고 일반적인 물건들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매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많기 때문에 늦게 가더라도 볼거리는 충분합니다. 판자웬의 또 다른 볼거리중 하나는 다양한 소수민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북경에서 쉽게 보기 힘든 다양한 소수민족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 소수민족들 모습을 보고 어느 소수민족인지 맞추는 것도 또 하나에 재미입니다.
-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요에 따른 무분별한 상품복제와 관광상업화의 심화에 의해 원래의 골동품 시장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 이곳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물건이 가짜라고 합니다.



- ▲ 개장 시간 : 토요일, 일요일 06:00 ~ 16:00
- ▲ 판매 상품 : 골동품, 도자기, 의류, 도장, 각종 악세사리, 기타
- ▲ 물건 사기 tip : 제시하는 가격의 절반 이하로 사야 된다고 하네요.



1.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기념품)을 주어진 돈의 범위 내에서 사보세요.



2. 그 물건을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선물할 것이며, 얼마를 주고 샀는지, 얼마를 깎았는지 적어보세요.



제5장 넷째날

01. 만리장성 - 거용관
02. 명13릉 - 신종 정릉
03. 798 예술 거리



1. 만리장성 개요

-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유적은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방어용 성벽이다. 지도상 연장 길이 2,700km이며, 중간에 갈라져 나온 지선들까지 합치면 총 길이가 약 5,000~6000km에 이른다. 동쪽 산하이관[山海關]에서 서쪽 자위관[嘉峪關]까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다. 보통 만리장성의 기원을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 때로 잡지만 그보다 훨씬 전인 춘추시대(BC 770~ BC 443)부터 북쪽 변방에 부분적으로 성벽이 건축되었다. 통일 왕국인 진나라가 들어서면서 북쪽의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 성벽을 연결하고 증축한 것이다. 당시의 만리장성은 동쪽 라오양[遼陽]에서 서쪽 간쑤성[甘肅省] 민현[岷縣]까지로 지금보다 훨씬 북쪽에 있었다.

2000여 년 역사, 시대에 따른 변화

- 만리장성이 현재 위치에 처음 축성된 것은 6세기 북제(北齊) 시대이다. 처음 건축될 무렵의 길이는 산시성[山西省] 리스 현부터 보하이만[渤海灣]까지 약 1,500km였다. 이후 명(明)나라 때 총 길이 2,700km에 이르는 현재의 규모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명나라는 15세기~16세기에 만리장성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북방에 있던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북방민족인 만주족이 세운 청(淸) 왕조에서는 군사적 가치가 없어 방치되어 있다가, 중화인민공화국 때 관광 목적으로 보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만리장성 2,700km가 똑같은 구조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중으로 축성된 곳도 있고, 성벽의 높이나 폭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체로 서쪽보다는 동쪽이 견고하게 축성되어 있다. 성을 쌓은 재료는 햇볕에 말린 벽돌과 이것을 불에 구운 전(磚), 그리고 돌 등인데 동쪽으로 갈수록 더 단단한 재료를 사용했다. 성벽은 높이 6~9m, 평균 폭은 위쪽 4.5m, 아래쪽 9m이다. 100여 m 간격으로 망루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군사적 방어선이자 문화적 경계

- 중국 역대 왕조들이 만리장성을 쌓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왕조의 성격에 따라 만리장성의 중요성이나 만리장성에 쏟는 정성도 달라졌다. 왕조가 공격적이었던 시기보다는 방어적이었던 시대에 만리장성은 더욱 중시되었다. 북방 경영에 열심이었던 당나라 때나 전 세계를 무대로 침략전쟁을 벌였던 몽고제국과 뒤이은 원나라,

만주에서 일어나서 만리장성 너머까지 다스렸던 청나라 때는 그 중요성이 크게 떨어지고, 따라서 개보수 작업도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만리장성은 군사적인 역할 이외에 문화적으로는 유목문화와 농경문화, 중원과 변방을 가르는 경계선의 역할도 했다. 중국 역대 왕조들이 만리장성에 들인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방어벽으로서 역할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관계없이 오늘날 만리장성은 중국을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다.



[출처] 만리장성 [萬里長城, Great Wall of China] | 네이버 백과사전

2. 주요 유적지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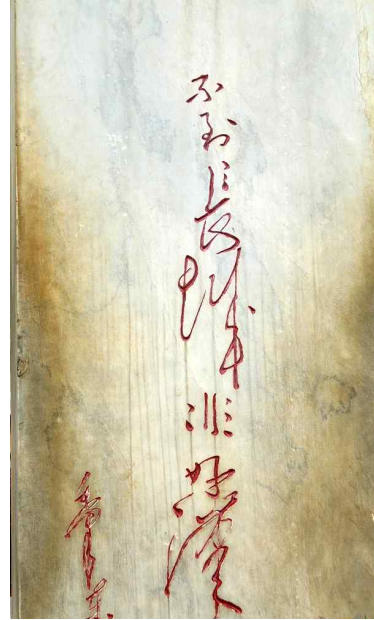
가. 거용관 장성

- 북경의 관문으로 팔달령 만리장성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북경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거리에 있다. 왼쪽 건물은 ‘천하제일용관’이라는 문루이며, 내부에는 작은 사당이 설치되어 있다. 그 우측에는 화포로 중무장할 수 있는 이층 벽돌건물의 돈대가 세워져 있다.
- 이곳 거용관이 처음 축조된 곳은 춘추전국시대의 연나라때로 당시에는 거용새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그 후 1368년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원나라가 침입할 것을 대비하여 보수, 증축하였다. 명대 이전 북경의 최종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이 부근의 장성은 몇 겹의 복잡한 축조가 이루어져 있고 거용관은 그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나. 휘호 비석

- 모택동의 '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다'라는 휘호가 적힌 비석이다.



1. 성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여 봅시다. 무엇으로 성의 안쪽과 바깥쪽을 알 수 있나요?



2. 만리장성이 가장 길게 나오도록 '나'를 넣어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3. 벽돌에 있는 낙서가 많이 있군요. 어느 나라 것들이 많은지 여러나라의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생각 키우기



다음 글을 읽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봅시다.

1.

장벽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것은 분단 독일 시절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다. 20여 년 전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이곳 역시 지금은 관광지로 변했다. 이번 전시에 등장하는 장벽은 8개 지역이다. 미-멕시코 장벽, 북아일랜드 벨파스 피스라인, 세우타-멜리아 철조망벽, 키프로스 그린라인, 한반도 비무장지대, 서사하라 치욕의 장벽, 인도-파키스탄 통제선, 팔레스타인 장벽이 그 여덟 곳이다.

몇 곳을 살펴보면 장벽의 본질이 보인다. 미국과 멕시코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미국사람들에게 멕시코는 계절휴양지이며 대학생들의 MT 장소 정도다. 그런데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인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꿈과 희망의 나라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거의 무사통과 하다시피 건너간다. 그렇지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절차는 복잡하다. 불법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식으로 국경을 건너가지 못하니 사막을 가로질러 미국으로 들어간다. 미국은 1991년 이후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철조망과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 총 3200km의 국경선 중 3분의 1 정도에 울타리가 쳐졌다. 지금도 매년 수 백 명이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거나 탈진하거나 물에 빠져서 사망하고 있다. 한쪽은 지키려고 하고 한쪽은 넘어가려고 한다. 비극의 장벽이다.

유대인 정착촌과 팔레스타인 아랍인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팔레스타인 장벽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불린다. 국제사법재판소가 2004년 분리장벽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사람들은 ‘보안 장벽’, ‘테러 방지 벽’이라고 부르지만 팔레스타인사람들은 ‘분리장벽’, ‘수치의 벽’이라고 부른다. 장벽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신음 소리가 장벽을 넘나든다.

분단국가 한반도가 빠질 수 없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화력이 집중되어있는 경계이자 장벽이 바로 비무장지대다. 폭 4km, 길이 250km에 걸쳐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다. 수백만 명이 죽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3년에 설치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냉전의 상징이다. 아직 분쟁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관문점은 외국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코스가 되었다.

2.

1626년, 누르하치는 성경과 광령을 공략하고, 그 여세를 타고 남하해 명나라의 북방 성벽인 영원을 침공했으나 명장 원승환의 포격에 부상당해 성경으로 퇴각했다가 그해 8월 병사함으로써 명나라가 ‘영원대첩’을 기록케 했다.

이듬해 1627년, 누르하치의 여덟째 아들 홍타이치(皇太極)가 조선의 친명 정책을 차단하려 정묘호란을 도발하는 한편 다시 금주와 영원을 공격했지만 이번에도 명군의 홍이(紅夷)대포에 놀려 명나라가 또 한번 ‘금령대첩’을 기록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636년, 홍타이치는 국호를 대청(大清)으로 바꾸고 침략과 패권의 의지를 굳혔다. 그해 겨울, 다시 조선을 침공하는 병자호란을 도발해 1637년 인조로부터 삼배구고두(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림)라는 치욕적인 항복을 받아냈다. 북으로도 소수민족의 귀복을 추스른 뒤, 능해·금주·송산·행산·고교·탑산·영원 등지를 점령하고 나아가 산해관을 넘어 연경(지금의 북경)에 청나라 깃발을 꽂는 데 온 힘을 쏟았다. 1643년 홍타이치는 산해관을 압박, 영원성을 사수하고 있는 명나라 총사령 오삼계(吳三桂)에게 투항을 권고했다. 1644년 때마침 농민군을 끌고 북경을 함락한 이자성(李自成)이 북경에서 오삼계의 저택을 점거하고 그의 애첩을 탈취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를 고문치사하는 등 횡포를 자행하자 오삼계는 그 통한을 안고 차라리 청군과 연합해 농민군을 북경에서 쫓기로 했다. 끝내 오삼계는 산해관 관문을 열고 청군의 무혈입성을 도왔고 그해 5월2일 홍타이치는 북경을 진압, 9월19일 북경에 대청제국을 세웠던 것이다.



1. 만리장성이 명의 멸망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세계에는 많은 벽들이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많은 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여 봅시다.

- 명13릉은 명나라의 16황제 중 13황제가 묻혀 있는 곳으로 북경의 북쪽 교외에서 40km 쯤 떨어진 연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1950년대 말에 중국 정부가 이 곳에 13릉 댐을 쌓고 정릉박물관을 개관하면서 북경의 주요 관광지가 되었다.
- 명나라의 역대 황제와 그들의 능 이름은 아래 표와 같다. 황제에 올랐던 사람은 16명인데, 이 곳에 13개의 능이 있다.
-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은 남경에서 나라를 세웠고, 죽어서도 그곳에 묻혔다. 주원장이 죽고 장자인 주윤문이 황제를 자리를 물려받았으나 주원장의 셋째 동생인 주체가 황제의 자리를 뺏으면서 주윤문의 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체가 3대 황제로 즉위하면서 도읍을 북경으로 옮기고 죽어서 창평현에 묻히면서 명 13릉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6대황제 영종은 몽고 정벌 중에 몽고군에게 7년동안 붙잡혀 있게 된다. 이 기간동안 아우 주기옥이 황제의 역할을 하였는데 영종이 돌아오고 나서도 황제의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영종은 주기옥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연금하였으며, 주기옥은 죽어서는 이화원부근의 금산에 매장되었다. 13개의 능이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연대	시호	이름	년호	재위기간	능명
제1대	태조	주원장(朱元璋)	홍무(洪武)	1368년 ~ 1398년	
제2대	혜종	주윤문(朱允炆)	건문(建文)	1398년 ~ 1402년	
제3대	성조 (명 태종)	주체(朱棣)	영락(永樂)	1402년 ~ 1424년	장릉
제4대	인종	주고치(朱高熾)	홍희(洪熙)	1424년 ~ 1425년	헌릉
제5대	선종	주첨기(朱瞻基)	선덕(宣德)	1425년 ~ 1435년	경릉
제6대	영종	주기진(朱祁鎮)	정통(正統)	1435년 ~ 1449년	유릉
제7대	대종	주기옥(朱祁鈺)	경태(景泰)	1449년 ~ 1457년	
제6대	영종	주기진(朱祁鎮)	천순(天順)	1457년 ~ 1464년	유릉
제8대	현종	주견심(朱見深)	성화(成化)	1464년 ~ 1487년	무릉
제9대	효종	주우당(朱祐樞)	홍치(弘治)	1487년 ~ 1505년	태릉
제10대	무종	주후조(朱厚照)	정덕(正德)	1505년 ~ 1521년	강릉
제11대	세종	주후총(朱厚熹)	가정(嘉靖)	1521년 ~ 1567년	영릉
제12대	목종	주재후(朱載堉)	융경(隆慶)	1567년 ~ 1572년	소릉
제13대	신종	주익균(朱翊鈞)	만력(萬曆)	1572년 ~ 1620년	정릉
제14대	광종	주상락(朱常洛)	태창(泰昌)	1620년	경릉
제15대	희종	주유교(朱由校)	천계(天啓)	1620년 ~ 1627년	덕릉
제16대	의종 (명 사종)	주유검(朱由檢)	숭정(崇禎)	1627년 ~ 1644년	사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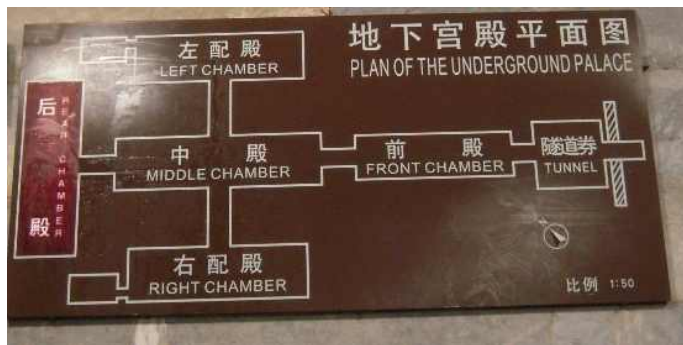
- 13개의 능 중 가장 큰 능은 장릉으로, 남쪽 끝의 백석패방(白石牌坊)에서 능문(陵門)까지 7km에 이르는 길에는 거대한 석인(石人)과 석수(石獸)가 서 있다. 장릉발굴의 예비조사로서 정릉이 1956~1958년에 발굴되었으며, 출토된 호화로운 금은 그릇 등의 부장품은 앞뜰의 전시실에 전시되고, 지하묘실은 정릉박물관으로서 공개되고 있다.



1. 유적주요탐방지

가. 정릉

- 정릉은 만력이 22세에 때 능을 짓기 시작하여 6년이 지난 28세에 완성하였다.
- 지하궁전은 다섯 개의 전실로 이루어져 있다. 후전실에는 황제와 두 비빈의 관, 부장품을 담았던 상자가 놓여있다. 중전실에는 한백옥으로 만든 황제와 두 비빈의 신좌, 왕색의 오지로 만든 오공(향로 하나와 촛대와 화병 각 2개), 향아리(장명등의 기름을 담아둔다)가 있다. 좌우배전실은 비빈들을 순장하기 위해 만든 전실이었으나 이미 순장제도가 폐지되었던 터라 순장된 비빈은 없다.
- 만력제는 살아생전에도 이 지하궁전에 와서 연회도 베풀고 놀았다고 한다. 그의 사치와 낭비를 알 수 있다. 이 지하궁전을 짓는데 소요된 막대한 공사비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원조비의 2배가 넘었는데, 당시 명나라 국가예산의 2년분에 해당한다고 한다.



나. 지하궁전의 석문

- 정릉의 지하궁전에는 모두 일곱 개의 석문이 있다. 전,중,후의 전실에 각각 하나씩이 있고 좌우 배전실에 각각 2개씩이 있다. 문 한쪽의 무게는 4톤에 이르는데, 이와 같은 문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문기둥쪽은 두껍게, 빗장쪽은 얇게, 그리고 문 축의 아래부분은 반구형으로 하고 있다.
- 황제가 다니는 문에는 못자국이 한줄에 9개씩 아홉줄로 81개가 있는데 이는 용의 비늘이 81개로 9자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 무자비

- 만력제는 48년 재위에 27년간은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아들 태장제는 아버지 공덕을 새기고자 해도 쓸 것이 없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하기도 하고 지고한 황제의 수많은 공덕을 다 기록할 수 없어 그냥 비만 세웠다는 설도 있다.



1. 지하궁전의 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잠금장치에서 다른 문과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을 잠글 수 있었을까요?



2. 황제릉을 거대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내세관이나 정치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3. 만력제의 무자비에는 아무런 내용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공덕을 새길 것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남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모듬 친구들의 장점을 같이 이야기하여 보고 적어봅시다.



생각 키우기



다음 글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명13릉을 축조하는데 소요된 나무, 벽돌, 돌 등은 전국 각지에서 조달되었다. 명 13릉에 들어간 목재는 모두가 녹나무로 운남, 귀주, 사천 등 남방의 맹수가 득실거리는 깊은 산 중에서 생산된 것이다. 벌목 작업은 일년내내 이루어졌는데 혹한, 혹서, 상병, 기갈 등으로 인명피해가 크서 입산 1천, 출산 5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첩첩산중에서 벌목된 나무는 북경에 도착하기까지 5-6년의 세월이 걸렸다.

벽돌은 산동의 임청에서 생산된 무게 25kg내외의 백성전으로, 품질과 크기가 고른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 감독관을 파견하였으며 연간 1백만장을 거뒀다. 지하궁전은 전체가 큰 돌덩어리로 이 크고 무거운 돌들은 모두 수천리 밖에서 생산된 것이다. 겨울에는 길에 물을 뿌려 얼음길을 만들고, 얼음이 얼지 않는 계절에는 둥근 통나무를 밑에 깔아 밀고 당기면서 북경까지 운반하였다.

13릉중 가장 작은 능인 헌릉 조성에 직접 투입된 인력이 약 23만명이며, 벌채, 채석, 벽돌제조에 소요된 간접인력을 포함한다면 명 13릉에 소요된 인력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내면서 조선을 도왔던 명나라는 왜란 후 국력이 한층 쇠약해졌다. 이 틈을 이용하여 압록강 북쪽에 살던 여진족 사회에서는 급속한 통일운동이 일어났다. 만포진 건너편 건주위 여진의 추장 누르하치는 흥경노성을 근거로 하여 주변의 여진족들을 복속시키더니, 1616년(광해군 8년) 마침내 나라 이름을 ‘후금(後金)’이라 하고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서쪽으로 세력을 뻗쳐 1618년에는 푸순(撫順)을 점령하고 명나라에 대하여 전쟁을 포고했다.

명나라는 큰 병력을 풀어서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대해서 지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조선은 명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1619년 1만 3천 명나라의 원병을 보냈으나, 도원수 강홍립(姜紅立)은 후금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후금과 휴전을 맺고 돌아왔다. 그 후 명나라는 모문룡(毛文龍) 부대

를 압록강 입구의 가도(假島)에 주둔케 하였으나, 조선 측은 그들의 식량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후금과 친선을 도모하여 중립적인 정책을 취했다. 다시 말해 명나라와 후금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내치와 국방에 주력하는 실리정책을 펴나갔다.

3.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년 7월에 명나라가 참전했다. 명나라는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진왜란에 참여하였다. 또한 명군의 참전과 장기적인 조선 주둔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불러오고,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민폐를 끼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하지만 명군은 1593년 1월, 평양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때 조선 조정에서는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방국재조의 은혜)’로 인식했다. 재조지은은 ‘명이 임진왜란 당시 망해가던 조선을 다시 세워주었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용어다.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재조지은은 필요에 따라서 재해석되었다. 재조지은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군대를 파병하여 도와줌으로써 양국관계가 ‘혈맹’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조선의 존명적 태도는 확고한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고 인식했다. 명나라가 청나라에 멸망한 이후에도 조선 지식인들은 명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대명의리론’을 내세웠는데, 그 배경에는 재조지은이 있었다.



1. 명13릉은 절대권력에 의해 백성들은 수많은 희생과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명13릉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후손들에게 예술적 자긍심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를 생각해볼때 다시 바라본 명13릉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2. 임진왜란의 승리를 조선의 집권층들은 명의 도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을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이야기하여 보고, 조선의 집권층이 왜 명의 도움을 강조하였는지 생

각하여 봅시다.



3. 광해군의 중립정책은 조선의 많은 선비들은 ‘재조지은’의 논리로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선비라면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3

798예술거리

- 798예술구는 베이징 조양구 다싼즈지역에 위치한 예술 거리다. 이곳은 원래 구소련과 독일의 기술로 세운 무기공장으로 신중국 공업화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무기생산이 활력을 잃으면서 공장들은 정부에 의해 외부로 옮겨지고 이 일대에 새로운 전자타운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2002년 많은 예술가들이 임대계약으로 이곳에 예술공간을 조성하고 몇몇 예술가들과 함께 대외 예술행사를 개최하며 주목받기 시작한다. 2006년 798예술구는 정부에 의해 최초10개 문화창의산업 집중구로 지정되어 "창의지구(創意地區), 문화명원(文化名園)"의 슬로건과 함께 베이징의 문화 아이콘으로 상징되고 있다

- 798예술구는 타임, 뉴스위크, 포춘지 등에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 상징성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예술도시로 선정되었다.뿐만 아니라 매년 따샨즈국제예술제, 최근에는 798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798 双年展 등이 열려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베이징 798예술구에는 400여 개가 넘는 전문 화랑과 갤러리, 독특한 인테리어의 수많은 카페와 아트샵들이 몇몇 가동중인 공장들과 함께 공존하며 중국의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에도 수천명의 관광객과 세계적인 컬렉터와 딜러들이 이곳을 찾는 국제 미술 시장의 메카로 부상하였다.



1. 798거리는 무기공장이 있던 곳에 세워진 예술거리입니다. 왜 많은 예술인들은 이곳을 예술거리로 선택하였을까요?



2. 예술작품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마음에 드는 미술품을 찾아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제6장 마지막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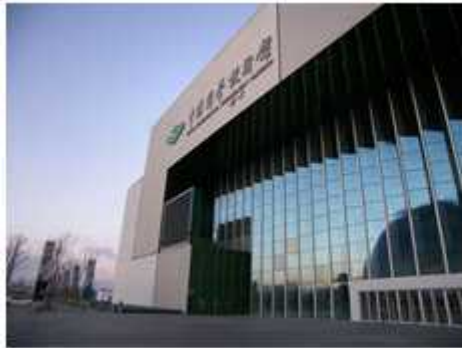
01. 과학기술관
02. 이화원



1

과학기술관

- 중국 과학기술관은 과학교육 및 인재강국 전략의 일환으로 지어진 곳이다. 과학, 지식, 오락성이 결합된 전시 내용과 체험을 통해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곳은 1988년에 개관한 구관과 베이징올림픽에 앞춰 2006년에 문을 연 신관으로 나뉘었다. 과학기술관은 과학 낙원(Science Paradise), 중국의 영광(The Glory of China), 탐험과 발견(Explorations and Discovery), 과학공학과 생활(Sci-Tech and Life), 도전과 미래(Challenges and Future)라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다. 하늘의 줄 위에서 자전거를 타보며 물체의 힘을 느껴보는 전시관과 별과 우주를 탐구하는 천체 전시관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동양 최대인 600석 규모의 4D 아이맥스 상영관도 유명하다.



2

이화원

-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서북쪽으로 10km 떨어진 교외에 위치한 중국 황실의 여름 별궁이자 최대 규모의 황실 정원이다. 총면적이 2.9km²에 이르며 자연 풍경을 그대로 이용한 정원에 인공 건축물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중국 조경 예술의 걸작품으로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금나라 때인 12세기 초에 처음 조성되어, 1750년 청나라 건륭제(乾隆帝) 때 대폭 확장되었다. 당시에는 칭이위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1860년 서구 열강의 침공으로 파괴되었다. 이후 서태후(西太后)가 실권을 쥐고 있던 1886년 재건되면서 이허위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로 이곳에서 수렴 청정을 했던 서태후는 일시적인 피서와 요양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이허위

안에 각종 전각과 사원을 추가해 본격적인 국사를 볼 수 있는 궁전 형태로 변모시켰다. 이허위안 재건비용은 거액의 해군경비를 전용하였는데 이때문에 청나라가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대한 자금을 들였다고 한다.



1. 유적 주요 탐방지

가. 인수전

- 인수전이 원래 이름은 정무를 부지런히 잘 챙긴다는 의미의 근정전(勤政殿)이었다. 인수전은 외국사신 접견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곳으로 궁궐건물들처럼 청동으로 만든 중국 신화 속 동물인 황룡, 봉황, 기린상과 정원을 꾸미는 화려한 원림치석(수석)을 전시해놓고 있다.



- 11대 황제 광서는 할머니인 서태후의 섭정으로부터 벗어날 겸 변법유신운동을 계획하고, 병권을 쥐고 있는 원세개에게 도와줄 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원세개가 자희태후에게 고함으로써 이 곳에서 막이 올랐던 변법유신운동은 100일도 못되어 보수세력에 의해 진압되었다. 어린시절에는 수렴청정을 한 서태후가 뒤에서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읊조렸을 뿐이고, 서태후에 의해 유폐되고 나서는 인수전에 발걸음조차 못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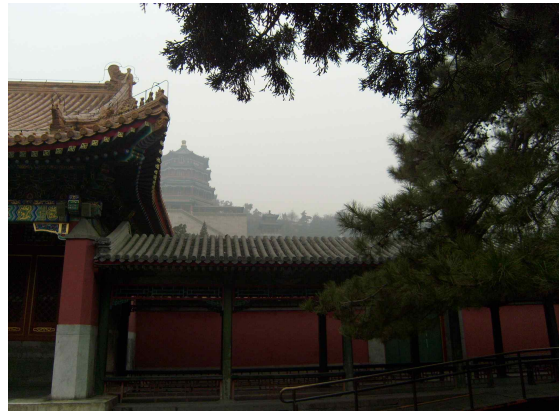
나. 인공호수

- 이허위안에는 거대한 인공호수와 60m 높이의 인공산을 중심으로 각종 전각(殿閣)과 사원, 회랑 등 3000여 칸의 전통 건축물이 자리잡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총면적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거대한 인공호수 쿤밍호(昆明湖)다.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처럼 광활해 인공으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항저우(杭州)에 있는 시호(西湖)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다. 거대한 인공산, 아름다운 건물

- 쿤밍호 북쪽에 있는 약 60m 높이의 완서우산(萬壽山)은 쿤밍호를 조성할 때 파낸 흙을 쌓아 만든 인공산이다. 건축물들은 모두 산의 남쪽 기슭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산 정상에 있는 불당 즈후웨이하이(智慧海)는 드넓은 쿤밍호를 비롯한 이허위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바로



아래 21m 높이로 우뚝 솟아 있는 6각형의 불전 푸시양가오는 이허위안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로 꼽힌다. 이외에도 서태후가 정사를 보았다는 런서우디엔, 홀로 휴식을 취했던 곳으로 중국 최대의 경극극장이 있는 더허위안(德和園), 관세음보살상이 모여져 있는 파이윈디엔(排云殿) 등이 유명하다.

다. 장랑

- 이허위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건축물은 창랑(長廊), 즉 긴 복도다. 길이가 778m, 273칸으로 중국에서 가장 크고 긴 복도이며, 천장과 벽에 수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 '중국 최대의 야외 미술관'으로 불린다. 이외에도 중국의 안녕을 기원하며 만들었다는 쿤밍호에 떠 있는 듯한 돌배(石

舟), 여러 개의 돌 다리, 아름답게 조각된 수많은 석상들을 볼 수 있다



1. 장랑에는 항주의 서호 풍경 546폭이 그려져 있었는데 1960년대에 중국정부가 1400여폭의 민속화를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서유기나 삼국지 등의 명장면이 그려져 있다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장면은 없는지 찾아 사진을 찍어봅시다.



2. 이화원의 호수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큼니다. 이렇게 큰 호수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3. 호수 한쪽에는 돌로 만든 배 하나가 있습니다. 물에 뜨지 않는 돌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 키우기



다음 글을 읽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봅시다.

1.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철의 여인 서태후. 남성중심의 나라에서 거대 대륙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이화원의 명실상부한 주인 서태후는 청나라 제 9대 함풍제의 후궁이었다. 정실이었던 동태후에게서 뒤를 이를 소생이 없자 그의 아들 동치제가 5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된다. 어린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앉자 그녀는 수렴청정이라는 명분으로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아들이 천연두에 걸려 요절하자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마저 죽게 하고 함풍제의 동생과 자신의 여동생의 세 살 된 아들 광서제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다.

1889년 광서제를 결혼시키고 이화원으로 물러나면서 황제의 친정을 선포하였으나 실제로는 궁궐은 서태후의 사람들로 가득 차있었다. 성인인 된 광서제는 서태후의 간섭에서 벗어나 직접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청나라의 지식인들과 함께 변법자강운동을 일으킨다. 하지만 서태후는 광서제를 유폐시켜버렸는데 죽을때 까지 10년동안을 유폐되어 지냈다. 광서제는 38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는데 서태후는 다음 황제로 세 살 밖에 안된 부이를 선택하였으며, 광서제가 죽은 난 얼마 후 유명을 달리 하였다.

2.

정치에서 최고 권력을 가졌던 서태후였던 만큼 그녀는 어린 시절의 가난에 복수라도 하듯 사치를 즐겼다고 한다. 서태후의 사치와 향락은 중국 역사상에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가 먹는 음식은 한 끼에 128가지나 되었다. 돈으로 환산하면 백은 100만 냥이었다. 이것은 당시 중국 농민의 약 1년 치의 끼니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었다. 옷은 3000여 상자나 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다녔고 특히 보석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였다. 언제나 비취와 진주로 머리 장식을 했으며, 비취 구슬과 진주를 매단 옷을 입었다. 비취 팔찌, 비취 반지뿐 아니라 손톱에까지 비취 보호판을 달았다. 식탁도 비취로 만든 식기들로 차리게 했으며, 비취로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게 하였다.

3.


성인이 된 광서제는 자신의 나라를 자기가 직접 통치하고 싶었다. 서태후의 전횡으로 기울어가는 청조도 광서제에게는 큰 걱정이었다. 광서제는 청일전쟁을 통해 황제의 좁은 입지를 벗어나보려 했다. 그는 서태후를 몰라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예상 외로 강했다. 거기에다가 청일전쟁에서의 승리가 광서제의 입지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을 두려워한 서태후의 방해 공작도 있었다. 서태후는 전쟁 중에 군비의 일부를 빼돌려 이화원을 치장하는 데 썼다.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어이없는 패배로 끝이 나고 청나라는 세계 만방에 자신들의 국력이 형편없음을 알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1. 남성중심의 유교국가 중국에서 47년 간 실제 통치자였던 서태후는 그녀의 최후에도 다음 황제로 3살짜리 부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녀에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2. 여러분이 가지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또 그 행복을 가지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요?



제7장 역사 논술 짱 되기

01. 역사를 알아야 한다.
02. 논술이란 무엇인가?
03. 논술의 노하우
04. 논술 답안 작성의 원칙
05. 기출 및 예상 문제 풀이



■ 역사가 다루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선택하여 기록한다. 역사가는 현재를 살면서 현재의 문제와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즉 역사는 과거의 사실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써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일본과 ‘종군위안부’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고통을 받는 ‘위안부 할머니’라는 현재의 문제이다. 역사가 (역사를 쓰는, 또는 배우는 사람 모두)는 ‘위안부 할머니’라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라는 현재의 관점을 갖지 않고서는 역사를 쓸 수 없다.

■ 다양한 해석의 문제 -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 역사는 현재 자신이 서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예를 든다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 1965년 한국정부와 맺은 한일협정으로 식민지 배상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사도 위안부는 정부가 개입한 일이 아니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 이런 생각의 차이가 역사 해석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역사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 현재의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이 없다면 자신의 주장이 이리 저리 바뀌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하는 멍한 글을 쓰게 된다.

■ ‘누가’, ‘왜’를 항상 생각하자.

-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한 일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 보는 인과관계의 파악, 역사 인물처럼 생각해 보는 감정의 이입,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역사적 판단 등이 생기게 된다.

■ 역사란 수능을 위해 기출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 역사란 현재 내가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현재의 안내자이다. 역사란 과거에 나온 고민 즉,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여** 현재에 제기된 문제 즉, 응용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과 같다. 과거의 경험을 안내자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한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고, ‘지혜롭다’는 것은 현재 닦친 문제를 잘 파악해서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 세줄 요약

1. 역사는 과거라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다.
2. 내가 어느 편인지 확실하게 정한다.
3. ‘누가’, ‘왜’를 따져 가며 기출문제(과거 역사)를 푼다.

2 논술이란 무엇인가?

논술이란 무엇인가?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1. Thinking is self-discovery !

- “나와 당신들은 진리에 어긋나서도 안되지만 그 진리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우정론, 연애론, 행복론, 인생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남긴 쓰레기에 우리가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파스칼이 뭐고 니체가 뭐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가장 존귀한 사실은 그들의 천재보다 훨씬 존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고은 -
- 지식과 개념은 도구일 뿐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예리한 눈과 자신만의 생각이다. 그리고 논술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2. 자신의 생각을 키우기 위한 방법

가. 비판적 읽기

- 글을 읽는 방법 중 하나로 책이나 미디어 등의 내용을 하나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찬찬히 살펴가며 읽는 법. 자신의 생각을 키우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내가 접하는 책, 신문, 방송의 정보가 누군가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장이 어떤 사람의 이해를 대변하는가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신문이나 방송뉴스에서 비판적 읽기를 통해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를 찾는다면 사회를 보는 눈을 깊고 넓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문제의식을 갖기

- 어떤 문제, 현상, 대상이든지 먼저 ‘왜’ 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왜’라는 질문은 사건이나 현상의 바깥에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속에 숨겨진 본질을 파헤치기 위한 질문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다. 편견 버리기

- 편견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다.
- 아래의 우스개 소리를 읽어보자.

자기가 이미 죽어있는 시체라고 믿는 어떤 정신병자가 의사와 면담하고 있었다. 의사는 이런 저런 논법으로 그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득시키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실증을 들이대기로 하였다. “죽은 사람의 손을 바늘로 찌르면 피가 안 나오지요?” 의사의 질문에 환자는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했다. 의사는 바늘을 가져다가 그의 손을 찔렀다. 피가 흐르는 것을 확인시키며 의사는 자신있게 말했다. “이래도 당신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이에 그 정신병자는 놀라면서 말했다. “야, 죽은 사람도 손을 찌르면 피가 나는구나!”

- 편견은 특정 인물이나 사물 또는 뜻밖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지는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이나 의견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느 사회나 집단에 속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대상(특히 특수한 인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직하는 나쁜 감정, 부정적인 평가, 적대적인 말들 전체를 의미한다. 편견은 편견의 대상이 되는 대상에 대해 뿌리깊은 적대감이나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편견은 한 번 굳어지면 논리적인 비판이나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진실이 밝혀져도 바꾸기가 어렵다.
- 대부분의 편견은 사회 및 집단 내부에 전통적으로 이어졌으며,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나 다른 연장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편견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결국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어떤 반유대주의자(유대인을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 A와의 대화

A : 유대인이 일으키는 문제란 그들이 자기네들 밖에 모르는 데 있어요.

B : 그러나 지역 사회금고 모금 운동을 보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는 데요?

A : 그게 바로, 언제나 남에게 호감을 사려하고 기독교적인 사업에 기여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돈밖에 생각하는 게 없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은행가들이 많지요

B : 그렇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금융계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율은 비 유대인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적당합니다.

A : 그렇다니까요. 그들은 좋은 사업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고 영화제작이나 나이트 클럽 같은 사업에만 종사한다니까요.

논술의 열개 - 내용(교과) + 논리(철학) + 표현 (언어능력)

- 역사논술은 역사적 사실 또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주제의식)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어법에 맞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2005년 중앙대학교 수시2학기 논술문제)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고대 그리스의 지적(知的) 전통을 물려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대 중국의 지적 전통을 물려 받았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고대 그리스와 중국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 구조가 매우 달랐을 뿐 아니라, 철학과 과학에서도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차이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그리스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삶이란 스스로 주관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행복에 대한 그들의 정의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그리스인들이 정의하는 행복이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만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을 ‘독특한 특성과 목표를 가진 상호 개별적인 존재’로 파악했다. 이 점은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오딧세이』와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신이나 인간은 모두 나름대로 개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들이었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는 자연스레 논쟁의 문화를 꽃피웠다. 호메로스는 남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근거로 전사로서의 전투 능력과 토론자로서의 논쟁 능력을 들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일개 평민일지라도 왕의 의견에 반기를 들고 왕과 논쟁을 벌일 수 있었고, 설득을 통하여 균중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다른 문화권에서와는 달리 그리스에서는 국가의 중대사에서부터 매우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결정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고대 그리스에서는 독재자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설사 독재자가 득세하더라도 곧 과두정치(寡頭政治) *나 민주주의(기원전 5세기경)로 대체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자유와 개성만큼이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중시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 “오직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기술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스인들은 그 누구보다 우주의 원리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고, 우주의 운행 원리에 관한 나름의 이론적 모델들을 만들어 냈다. 우주에 대한 강한 호기심은 그리스 문화가 물리학·천문학·기하학·형식논리학·이성철학·민속학 같은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우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 특히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교육받는다. 그리스인들에게 개인이 특정 집단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였다면, 중국인들에게 개인은 ‘특정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었다. 그리스인들이 연극이나 시 낭송을 관람하는 것을 특별한 일로 생각한 반면 동시대의 중국인들은 친구나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특별한 행사로 여겼다. 중국인들은 또한 주변 환경을 자신에 맞추어 바꾸기보다는 자신을 주변 환경에 맞추도록 수양하는 일을 중시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통치자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 중국인들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 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꽃병이나 술잔에는 전투나 육상경기처럼 개인들이 경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반면, 중국의 도자기나 그림에는 가족의 일상이나 농촌의 한가로운 정경이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중국인들이 권력자나 가족 공동체 우두머리의 권위에 한없이 휘둘리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였던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자율성, 즉 팀워크가 우선시되었을 뿐이다. 중국의 핵심 도덕인 유교에 따르면 인간은 군주와 백성,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노인과 젊은이, 친구와 애인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관계적 존재이다. 그래서 그들은 민주주의를 대신하여 가족 제도를 정착시켰다. 중국인들이 인간 관계의 조화를 중시했다고 해서 죽대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자는 선비들이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남을 따르려는 동조 욕구와 구별했다. 고대 중국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에 비해 자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은 약한 편이었지만 실용 정신이 확고하여 잉크·도자기·관개시설(灌漑施設)·자석 나침반·손수레·지진계·면역 기술·외륜선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처음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즉,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관심이 실용 과학을 일으켰다.

<어휘>

* 과두정치 : 몇 사람이 권력을 나눠 통치권을 행사한 정치 형태.

1. 이글의 핵심적인 주제를 100자 이내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쓰시오.
= 논술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제시문은 그리스의 철학과 중국의 철학이 서로 다르고 이것이 현대 동양과 서양의 철학과 과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글에 근거하여 고대 그리스인의 문화적 전통이 갖고 있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200자 이내의 분량으로 기술하시오.
= 제시문이 들고 있는 논거를 파악하면 제시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난 것이다.
3. 개인주의와 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가 고대 중국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위글에 근거하여 250자 분량으로 논의하시오.
= 고대 중국인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없다 등으로 내 주장을 확실하게 정하고, 이를 통해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현재 문제 해결방법을 논리의 근거를 들어 논술하여야 한다.

■ 정리

1. 제시문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2.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한다.
3. 현재 문제로 연결하여 해결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1) 논술문 작성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 논술문을 읽는 사람은 평가하는 선생님이다. 논술문은 선생님께서 읽혀진다는 전제 아래 써야 한다. 선생님이 논술문을 읽는 것은 평가를 위해서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각 채점 기준은 논술 고사 실시 요강에 제시되어 있으며 대체로 착상, 내용, 구성, 전개, 표현, 전체 흐름 등의 요소를 골고루 본다.

(2) 주제가 결정되면 절반은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 문장에는 중심이 되는 기둥 같은 것, 즉 주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문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을 쓸 것인가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쓰기 시작하지 않으면 도중에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여 찢쩍 매게 된다. 간신히 써 나가긴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문장이 되어 버린다. 글을 쓰는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제가 확고해 진다.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에 대하여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하여 감동을 주기 위해서, 등의 세 가지다.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여행을 할 때 어디에 갈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쓰는 글이 좋은 글이 될 수는 없다.

(3) 의식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쓴다.

- 문장은 개성의 주장이다. 개성의 주장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가 어느 입장에서 서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복 자율화는 옳은가 그른가?’라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찬성론에도 일리가 있고, 금지론에도 일리가 있다.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와 같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글을 쓰면 안된다. 찬성이나 반대나 다 같이 시시한 것이므로,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다’와 같은 식으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명확히 자기 입장을 밝히는 글이어야 한다. 단,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하는 독선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4) 논술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써야한다.

- 논술문을 정해진 시간 안에 써야 하는 것이므로 평소에 시간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두어야 한다. 주제 설정, 제재의 선택, 개요 작성, 집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계산해 둔다. 그리고, 원고지 한 장 분량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쓰는 데 걸리는 시간도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 논술 고사에는 자수(字數)의 제한이 있다. 대체로 800자 ~ 1200자 정도를 요구하는데 200자 원고지 4 ~ 6장의 분량이다. 정해진 분량에서 10%정도 모자라는 경우는 대개 감점이 되지 않으나 '1,000자 이내'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면 980자 이상은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수가 많이 초과되는 경우는 부족한 경우보다 엄격하여 감점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글자 수는 많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5) 글씨는 깨끗이, 문장은 짧게 써라.

- 글씨를 잘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생님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문장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쓰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 쉽게 전달된다. 문장을 길게 늘어 쓰면 내용이 많아지고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한 문장에 한 가지 내용만을 담도록 하는 것이 좋다.

(6) 어법에 맞게 써라

- 아무리 좋은 내용도 표현이 엉망이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또한 표현력이나 정서법도 채점 항목에 들어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학생들이 조심해야 할 어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이 되도록 쓴다. 모든 문장은 '무엇이'와 '어떻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무엇이 어떻게'라는 관계만 명확하게 표현하면 문장의 골격은 갖춘 셈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글을 읽어 보면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의 희망은 사회에 진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에서 '나의 희망은'과 '생각한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나의 희망'을 '나는'으로 바꾸거나 '되려고 생각한다'를 '되는 것이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문장이 길어지고 한 문장에 몇 가지 의견을 담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 나. 주어를 가급적 생략하지 않는다.
- 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써라.

- 라. ‘...인 것 같다.’ 등의 서술은 자신의 의견에 자신없는 태도를 보여준다. 논술에서는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다.
- 마. 영어식 어법, 일어식 어법을 쓰지 않는다. 영문의 번역에서 쉽게 보는 문장인데 우리말 문장에는 피동태 문장은 없다.
 -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어진 자동차 (생산된)
 - 그녀가 나에게는 예쁘게 보여진다.(보인다)
 - ‘~ 적’이라는 표현도 안쓰는 것이 좋다.

5 기출 및 예상 문제 풀이

1.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1980년대 초반까지 거의 대부분의 중국 역사서와 교과서에 고구려사는 한국사의 범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부상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사라는 새 원칙이 역사서술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1)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사’라는 원칙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 2) 중국정부가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중국의 4대 발명품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4대 발명품을 소개합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이 8월 8일 밤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학생 군인 직업예술가 등 1만5000여 명이 동원돼 중국을 대표하는 4대 발명품을 형상화한 예술 공연 중 ‘문자’공연이 펼쳐졌다.

- 1) ‘중국을 대표하는 4대 발명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발명품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 2) 4대 발명품 중 한국이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서양사에서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3. 동북아 역사논쟁 [서강대학교 2005 수시1]

※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동북아 중심 국가’, ‘동북아 경제 중심’, ‘동북아 시대’, ‘동아시아 통화기금’, ‘동아시아 공동체’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동북아의 협력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풍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이 협력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후자는 그 주된 이유를 동북아가 그 동안 정치·군사·경제적인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협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역사 충돌’ 또는 ‘역사 전쟁’으로 불리고 있는 ‘동북 공정과 고구려사 논쟁’ 그리고 ‘일본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이다. 전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후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학술적 논쟁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하여 이 지역에서 미묘한 긴장과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 1. ‘공유하는 역사와 역사 인식’이 동북아 협력의 토대가 된다고 볼 때, 동북아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문제 2. 한국과 중국 간에 전개되고 있는 ‘고구려사 논쟁’이 양국 간의 긴밀한 정치·경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가?

4. 유럽(서구) 중심주의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유럽중심주의적 생각은 역사학뿐 아니라 대부분의 근대 유럽 학문에서 나타난다. 이들 학문이 18세기나, 또 유럽의 우월이 확실해진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갖고, 또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역사학이다. 유럽 사람들이 유럽문명의 창조성과 독특성을 주로 역사학을 통해 보여 주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관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앞에서 말했지만 18세기부터 유럽에서 발전한 진보와 문명이라는 개념이다. 진보는 인간의 지적이거나 물질적인 능력이 커지며 인간의 역사는 무한히 발전하여 세상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17, 18세기에 유럽이 이룬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인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1) 사회진화론은 무엇이며, 유럽중심주의를 어떻게 뒷받침했는가?

2) 한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럽중심주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8장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 UCC 만들기

- 01 활동을 제안하면서
- 02 날짜별 활동 계획
- 03 UCC 영상 제작 과정



1

활동을 제안하면서

- 요즘 청소년들을 영상세대라고 부른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TV를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는 요즘 청소년을 잘 표현해준다. 이들에게 컴퓨터와 TV, 인터넷, 디지털카메라 등 영상미디어 매체는 문화의 주요 소통 수단이다. 게다가 최근 폭발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의 전유물이던 영상창작을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학생들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기를 하고 촬영까지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작업이다. 또한 시청각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영상창작 활동은 전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 UCC 제작을 통해서 북경 세계문화유산기행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디지털 영상 매체를 빌려서 표출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중국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으로 여행의 추억을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 동영상을 스스로 제작하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여행의 기억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UCC 제작을 통해서 4박 5일의 북경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을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날짜별 활동 계획

월/일	여행 지역	핵심 주제	촬영 예정 지역
12/30	1. 왕푸징 거리	중국의 명동 체험 중국의 다양한 먹을거리	
	2. 남당 (마테오리치 성당)	중국에 온 외국인선교사와 조선의 실학자	
	3. 저녁 식당	중국에서의 첫 식사	
	4. 호텔 (교육문화호텔)	이번 기행에서 머물 숙소 안 내	
12/31	1. 천단	하늘에 제사지내는 천자	
	2. 중국 전철 체험	중국 베이징의 대중교통 체 험	
	3. 국가박물관	중국의 문화유산	

	4. 자금성과 경산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의 궁전	
1/1	1. 주구점 유적	인류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여행	
	2. 노구교	중일전쟁의 시작이 된 아름다운 다리	
	3. 번가원	중국의 전통 품물 시장	
1/2	1. 만리장성	중화와 변방의 오랑캐를 나누는 거대한 벽 '만리장성'	
	2. 명 13릉	사후세계에서 조차 부귀영화를 꿈꾸는 황제의 욕망	
	3. 유리창거리	중국 현대 미술을 보자	

3 UCC 영상 제작 과정

계획세우기 → 대본작성 → 연기와 촬영 → 영상편집 → **작품감상**

1. 계획세우기

1) 구성 형식과 주제 정하기

일반적으로 UCC 구성 형식은 4가지 정도가 있다.

- ① 극 형식 : 우정, 성적, 커닝, 폭력, 기출, 도벽, 체벌, 학교생활, 청소년 문화, 교육 환경, 양성평등, 청소년의 갈등과 고민 등
- ② 다큐멘터리 형식 : 환경문제(공해, 쓰레기, 수질 오염, 자연 훼손, 우리 학교, 우리 교실의 쓰레기 실태 조사,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등) 우리 문화, 우리 생활에 파고든 외래문화(옷, 간판, 음식, 글, 생활 습관 등)에 대한 것, 현장 방문(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 복지원을 찾아 자원 봉사하며 소개), 우리 악기 소개, 문화재 탐방, 동물원에서 동물 소개, 공부 잘하는 방법 소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등 학습적인 내용 등을 표현하면 효과적이다.

③ 뮤직비디오 형식: 노래에 알맞은 이미지를 촬영하여 순서대로 배열한 뮤직 비디오를 만든다. 빠른 템포의 음악보다 발라드 계통이 표현하기가 쉽다.

④ TV 광고 형식: 일반적으로 상품을 선전할 때 적당하나 이 형식을 빌려 계몽적이거나 공익적인 내용을 표현해도 좋다.

- 이 중 짧은 시간에 만들어야 하고 또한 문화재 탐방이 대부분인 기행이므로 다큐멘터리 형식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제가 세계문화유산 북경기행이므로 각 유적 마다 갖는 세계문화유산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한 모둠원들이 보고 느낀 점들을 영상으로 표현하면 훌륭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 역할을 분담하기

① 대본작성, 연출, 연기, 섭외, 소품, 촬영, 녹음, 편집 등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한다.

② 소수 인원일 때는 몇 가지 역할을 겸해야 한다.

2. 대본 작성

1) 대본 작성

- 4박 5일의 중국여행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할 경우 극형식처럼 세밀한 대본이 필요하지는 않다. 탐방교재에 나온 일정을 중심으로 유적의 소개, 해당 유적에서의 활동 등을 중심으로 대본을 만들고, 개인적인 감상 등은 촬영하면서 넣는 것은 어떨까.

2) 콘티 작성

- 대본의 문단을 나누어 콘티 용지에 상세하게 옮긴다. 탐방 계획에 따라 미리 움직이는 동선을 상상하여 콘티를 작성하고 난 후 촬영이나 녹음을 해야 실수가 적고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으로 콘티를 작성하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글로 쓰는 것도 좋다.

★ 참고 : 콘티는 콘티뉴이티(Continuity)의 준말. 사전적 의미는 "연속"이라는 뜻. 영상을 만들면서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연결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본을 그림이나 글로 바꾸는 작업을 한 후 나온 문서를 말함.

작품 제작 계획 및 평가서

모듬이름 :						
1.역할 분담	대본 및 콘티-		촬영 -		소품 -	
	연기-		녹음-		편집-	
2.작품이름						
3.작품제작 이유/의도						
4.작품주제 (표현내용, 의미,가치)						
5.사용재료						
6.스토리 전개 과정(예상 흐름도)						
평 가 란	평가 항목	태도 (30)	연기력 (30)	기자재활용능력(20)	대본구성능력(20)	총 점
	학생 평가					
	교사평 가					

■ 콘티No(12/30)

제목:

모듬명:

장 면 순 서	영 상 장 면 (사진 장면)	대 사 / 지 문	음 악 효 과	소품 및 촬 영장소	출 연
1					
2					
3					
4					
5					
6					
7					

■ 콘티No(12/31)

제목:

모듬명:

장 면 순 서	영 상 장 면 (사진 장면)	대 사 / 지 문	음 악 효 과	소품 및 촬 영장소	출 연
1					
2					
3					
4					
5					
6					
7					

■ 콘티No(01/01)

제목:

모듬명:

장 면 순 서	영 상 장 면 (사진 장면)	대 사 / 지 문	음 악 효 과	소품 및 촬 영장소	출 연
1					
2					
3					
4					
5					
6					
7					

■ 콘티No(01/02)

제목:

모듬명:

장 면 순 서	영 상 장 면 (사진 장면)	대 사 / 지 문	음 악 효 과	소품 및 촬 영장소	출 연
1					
2					
3					
4					
5					
6					
7					

■ 콘티No(01/03)

제목:

모듬명:

장 면 순 서	영 상 장 면 (사진 장면)	대 사 / 지 문	음 악 효 과	소품 및 촬 영장소	출 연
1					
2					
3					
4					
5					
6					
7					

3. 연기와 촬영

1) 몰입 연기

① 연기할 때는 그 상황에 몰입하여 표정이 실감나도록 해야 하며, 제대로 될 때까지 반복 촬영한다. 긴 대사는 지루한 느낌을 주므로 가능한 한 함축하는 것이 좋다. 한 장면에 대사는 두 세 마디 정도로 하는 것이 지루한 느낌을 없애 준다. ② 디카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 대사가 동시 녹음되므로 목소리는 크게 하고 주변의 잡음이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촬영 기법

① 촬영은 야외나 밝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비 오는 장면이 필요하다면 맑은 날 물을 뿌리며 촬영하거나 편집할 때 이미지 수정 또는 필터효과를 적용한다. 공포물도 밤에 촬영하지 말고 이미지를 편집하여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좋다. '야간장면'은 파란색 셀로판지를, 노을 진 장면은 빨간색 셀로판지를 적당히 잘라서 카메라 렌즈 앞을 가린 후 찍거나 밝게 찍은 이미지를 편집할 때 명도·채도·색상을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한다.

② 찍을 때는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을 가다듬고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야 선명하게 나온다. 카메라 받침대(삼각대)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③ 가능하면 같은 장소에서의 장면은 한꺼번에 촬영을 해둔다. 대사와 효과음, 배경 음악 등의 시간을 철저히 계산하여 시간에 맞게 찍는다. 제목이나 스텝을 소개할 이미지도 미리 촬영해두고, 화면에 날짜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④ 필요한 내용이나 주연, 물체 등이 가능한 한 화면에 가득 차게 한다. 또 화면 내에 의미 없는 공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카메라의 방향·거리·각도 등을 고려한다.

⑤ 어두운 곳이나 역광이 있는 곳은 피하며 화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찍는다. 빛을 마주보고 촬영하면 물체가 검게 나오므로 빛을 등지고 찍거나 배경을 어둡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교실장면에서는 인물 뒤에 나오는 유리창의 빛을 조심한다.

⑥ 각 장면의 시작과 끝부분에 시간적 여유를 주고 찍는다. 즉 카메라 담당자는 '레디 액션'하기 2초전에 이미 동영상을 찍기 시작해야하고 마지막 '컷'한 후에 촬영 정지를 해야 한다. 촬영 순서는 편집 시 다시 배열하면 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4. 영상 편집

1) 영상 편집 방법

- ① 편집할 동영상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동영상(또는 이미지)은 보일 순서대로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편리하다.
- ② 동영상은 무비메이커로 편집<붙임2 참고>하고, 정지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편집하여 원하는 부분에 삽입한다.
- ③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편집하는 중간에 수시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한다.
- ④ 무비메이커 프로그램을 열고 파일을 불러들여 순서대로 배열한다.
- ⑤ 대사·효과음·배경음악 등을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 배경음악 자료실 <http://www.freebgm.net/v3/freebgm>
 - 다양한 효과음 <http://blog.daum.net/y017370/8500197>
<http://www.tutudisk.com/main/storage.php#null>
- ⑥ 편집이 끝나면 wmv 파일로 출판한다.
- ⑦ 결과물을 보고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프로젝터 파일을 열어서 고친다.

2) 음향 효과음 녹음

- ① 대사와 배경 음악·효과음은 장면의 느낌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장면과 음악의 느낌이 일치해야 한다. 조용한 음악과 강하고 빠른 음악이 적절히 혼합되는 것이 좋으나 자주 바뀌면 산만해진다.
- ② 녹음은 컴퓨터의 보조프로그램 속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녹음기를 사용한다. 녹음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녹음 가능하며, 한 장면씩 녹음해도 된다. 단, 녹음을 중간에 멈춰야 한다면 일시정지 버튼을 사용한다. 대사는 크게 녹음하는 것이 좋다. 녹음 시 화면의 흐름과 상영 시간을 잘 고려해야 한다. 장면과 장면의 시간적 간격이나, 장면 전환 시의 배경음악 등을 신중히 고려한다.
- ③ 효과음은 인터넷에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를 찾아 활용한다.

5. 작품 감상

결과물을 제출하면 각 조별 대표자가 나와 작품소개를 한다. 다함께 감상한 후 느낀 점을 발표하고 교사의 지도조언을 듣는다.

6. 작품 평가 방법과 기준

1) 작품 평가 방법

- ① 최종작품을 제출하면 다함께 감상한다.
- ② 작품계획 및 평가서를 학생에게 준 후 학생평가를 해보도록 한다.
- ③ 계획 및 평가서에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부터 보조역할을 한 사람 순으로 명기하도록 한다.
- ④ 교사는 학생들이 기록한 내용을 참고하여 작품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작품 평가 기준

학기	단원명	평가항목	평가단계			평가기준	비고
			등급	배점			
1	디자인 (UCC 영상 창작)	① 역할수행능력 및 수업태도(30)	A	20	30	각 항목 모두 매우 우수함.	항목별 채점 후 합산
			B	18	27	각 항목 모두 우수함.	”
		② 연기력(30)	C	16	24	각 항목 모두 보통임.	”
		③ 대본 구성력/주제의 창의적 표현력(20)	D	14	21	각 항목 모두 부족함.	”
		④ 카메라 활용능력/ 편집 능력 및 완성도(20)					

소감문을 작성해 봅시다~

1. 문화유산기행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2. 문화유산기행에서 아쉬웠던 점은?


3. 가장 좋았던 코스는?

4. 다시 참여한다면 답사해 보고 싶은 지역은?

5. 다시 참여한다면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6. 2012년 세계문화유산기행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7. 끝으로 소감 한마디.....



2011 세계문화유산으로 배우는 역사 논술 기행 - 북경편

발행일 : 2011. 12.

발행처 : 체험학습연구회 모아재

집필진 : 김봉수, 김진호, 김선희, 조성래

※ 판매를 금합니다.
